

혁신당 “전북 특정 당 공천=당선 부패 키워”

김제시장 미용비 대납 의혹 수사에
조국혁신당 전북도당 논평서 성토
“전체·책임 메커니즘 사실상 붕괴”
일당독점 정치구조 근본 원인 지적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은 5일 논평을 통해 “전북 정치에서 오랫동안 회자돼 온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말은 더 이상 과장이 아니다”고 전제 한 뒤 “특정 정당이 지방권력을 사실상 독점해 온 구조 속에서 선거는 경쟁의 장이 아니라 절차로 인식돼 왔고, 그 결과 지방권력에 대한 견제와 책임의 메커니즘은 현저히 약화돼 왔다”고 성토했다.

조국당은 “이러한 정치 환경은 결국 권력의 자기 통제력을 무너뜨리고 반복적인 논란과 의혹을 낳는 토양이 돼 왔다”며 “최근 불거진 김제시장 미용비 대납 의혹 역시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다시 한 번 드러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도당은 “언론 보도에 따르면, 현직 김제시장은 특정 사업가로부터 수천만 원대의 피부미용 시술 비용을 대납받았다는 의혹으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며 “사업가가 의료기관에 비용을 선결제 한 뒤 차감하는 방식이었다는 구체적 정황까지 보도됐으며, 현재 경찰은 관련 자료를 확보해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 여부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특히 “강제수사까지 진행되는 상황인 만큼, 사실관계는 수사와 사법 절차를 통해 엄정히 규명돼야 한다”며 “아직 사

법적 판단이 내려지지 않은 사안인 만큼 그 결론은 차분히 지켜보되, 수사에 대한 성실한 협조와 시민 앞의 충분한 설명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공직자가 저야 할 의무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사안을 단순히 개인의 도덕성 문제나 일탈로만 치부해서는 안 된다. 도민이 분노하는 지점은 ‘미용’이 아니라 공직자의 사적 비용이 제3자

에 의해 처리되는 관계 자체가 지역 사회 전체의 신뢰를 흔들고 있다는 사실이다”고 운을 댄 뒤 “공직은 사적 인맥과 호의로 운영될 수 없다. 공직자의 사적 비용 처리 문제가 지역 사회 전체의 신뢰 문제로 확산되는 현실 자체가 지방권력에 대한 시민의 신뢰가 얼마나 취약해졌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이다”고 덧붙였다.

또 “이는 특정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경쟁 없는 정치 구조가 반복적으로 만들어내는 결과에 가깝다”며 “권력형 비리는 대체로 견제받지 않는 권력에서 발생한다. 공천만 받으면 당선이 유력한 정치 환경에서는 선거를 통한 시민의 평가와 심판이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장정철 기자



“청렴전북농협구현” 전북농협은 5일 농협전북본부 대회의실에서 투명한 조직문화 확립과 대국민 신뢰 제고를 위한 ‘신뢰회복 자정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관련기사 4면) <사진=전북농협>

이명연 “다중이용시설 공기질 측정·공개 의무화” 상임위 통과

이 의원 대표 발의 개정조례
신축공동주택·대중교통 관리 확대
취약계층 시설 기술·자금 지원 가능



이명연 도의원

전북도의회 이명연 의원(전주10)이 대표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최근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안건 심사를 통과해 6일 제2차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실내공기질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도민 생활공간과 밀접한 신축 공동주택 및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측정·공개·보고 절차를 구체

화하는 것이 골자다. 조례안에 따르면, 도지사는 다중이용시설의 특성에 따라 실내공기질 유지기준과는 별도로 ‘권고 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도록 소유자 등에게 권고할 수 있다. 또 취약계층 이용시설에서 권고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 등의 개선·대체·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도 차원의 관리·점검 체계도 한층 강화된다. 도지사는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해 필요할 경우 다중이용시설 소유자, 신축 공동주택 시공사, 대중교통차량 운송사업자에게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이 현장에 출입해 오염물질 채취하거나 관련 장비 등을 검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지원 근거도 조례에 포함됐다. 도지사는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이 적절히 유지·관리되고 개선될 수 있도록 컨설팅, 개선을 위한 기술 및 자금 지원 등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일정 규모 미만 시설에 대

서도 예산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명연 의원은 “이번 조례 전부개정은 도민 생활공간의 실내공기질 관리체계를 책임 있게 정비하는 것”이라며 “측정·공개·점검·지원의 근거를 구체화해 도민의 ‘숨 쉴 권리’를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

특히 이 의원은 “조례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집행부와 긴밀히 협의하고 현장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시행계획과 지원방안까지 촘촘히 마련하겠다”며 “도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관계기관과 시설 운영자,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고 덧붙였다.

/장정철 기자

전북도, 청년·신혼 맞춤형 반할주택 2단계 200세대 공급

인구감소지역 2개 시군 대상 공모
보증금 5천 무이자·월 임대 50%
자녀 출산 시 임대료 전액 면제

전북개발공사와 전북도가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한 대표 정책인 ‘전북형 반할주택’ 2단계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도는 2026년 전북형 반할주택 2단계 사업 대상지 공모를 통해 도내 인구감소지역 2개 시·군, 총 200세대를 추가 공급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전북형 반할주택은 ▲임대보증금 최대 5,000만 원 무이자 지원 ▲월 임대료 50% 감면 ▲자녀 출산 시 월 임대료 전액 감면 ▲10년 거주 후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 전환 기회 제공 등 3대 혜택을 갖춘 전북특별자치도만의 주거정책 모델이다. 특히 자녀 출산 시 월 임대료를 전액 감면하는 제도는 주

거 지원과 출생 장려를 연계한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지난달 23일 시·군을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으며 2월 6일부터 3월 20일까지 전북개발공사에서 공모 접수를 진행한 뒤, 3월 말 평가를 거쳐 대상 시군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전북개발공사와 전북도는 “전북형 반할주택은 단순히 주거비를 낮추는 정책을 넘어, 청년과 신혼부부의 삶의 선택을 바꾸는 정책”이라며 “2단계 사업을 통해 더 많은 지역으로 확대해 청년이 머물고, 가정이 뿌리내리는 전북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앞서 2024년 장수군, 2025년 남원시·임실군 등 총 3개 시·군 320세대의 전북형 반할주택 1단계 사업을 선정·추진 중이며, 2027년 착공해 2030년 이후 순차적으로 준공할 예정이다.

/장정철 기자

경찰 공천헌금 강선우·김경 구속영장 신청

뇌물 대신 배임수·증재 적용
경찰, ‘공무’ 아닌 ‘당무’로 판단
송치 때 뇌물죄 적용 검토



강선우 의원

경찰이 5일 ‘1억원의 공천 헌금’ 의혹과 관련된 금품을 수수한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뇌물죄가 아닌 배임수재 및 배임증재 혐의를 받고 있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배임수·증재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신청했다.

경찰은 당초 공천을 앞두고 이뤄졌다는 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대상 뇌물죄 적용을 검토했으나 공천 업무가 뇌물죄의 구성요건인 ‘공무’가 아닌 정당의 자발적 조직 내부 의사결정인 ‘당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뇌물죄 대신 배임수재 및 배임증재 혐의를 적용했다.

다만 경찰은 향후 추가 조사와 법리 검토를 거쳐 최종 송치 단계에서 뇌물죄 적용 가능성도 계속 살펴볼 방침이라고 밝혔다.

강 의원은 지난 2022년 6월 지방선거

를 앞두고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1억 원을 받았다가 돌려준 데 이어, 2023년 10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전후로도 약 1억 3000만 원의 ‘조

개기 후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배임수재·증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1억 원 이상의 배임수재죄의 양형기준은 징역 2~4년이며, 배임증재죄는 징역 10월~1년 6개월이다. 각각 법정 최고형은 징역 5년과 징역 2년이다. 이는 뇌물수수(징역 7~10년·최대 징역 12년)와 뇌물공여(징역 2년 6개월~3년 6개월·최대 징역 5년)보다 가볍다.

강 의원이 현역 국회의원 신분이라는 점에서 국회의 동의 없이는 체포 구금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민주당의 동의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김영목기자



전북도, 설 명절 민생안정 종합대책 본격 추진

4대 분야 중점·종합상황실 가동 재난·안전 7개반 운영 비상체계 구축 농축수산물 구매 최대 30% 환급 지원 교통 증편·병의원 운영 강화

전북도는 설 명절을 앞두고 높아진 생활물가와 성수품 가격 부담, 귀성객 이동 증가 등에 대비하고 도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2026년 설 명절 민생안정 종합대책을 마련, 본격 시행에 나선다.

5일 전북도청 기자실에서 노홍석 행정부지사가 언론브리핑을 통해 설 명절 민생안정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역경제, 민생지원, 생활

편의, 안전 대응 등 4개 분야를 14개 과제를 중심으로 도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로 구성됐다.

이를 위해, 연휴 기간 동안 종합상황실(재난·재해 대책 등 7개반)을 운영하여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유사 시 신속한 대응으로 도민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특히 설 명절을 맞아 달라지는 정책으로는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국내산 농축수산물 온누리상품권으로 구매 시 당일 구매금액의 최대 30% 환급(2만원 한도/2.10~14) △지역사랑상품권 구매한도(최대 200만원) 및 할인율(최대 20%) 확대 △대중교통(철도, 시외버스 등) 증편 및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문어는 병의원·약국 확대 운영 등을 추진한다. /장정철 기자



5일 전북도청 기자실에서 노홍석 행정부지사는 언론브리핑을 통해 전북자치도 설 명절 민생안정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전북도>

전북자치도, 4억 투입 축사화재 예방 전기안전 강화

화재 원인 47% 전기적 요인 점검·설비개선 연계 선제적 차단 농가당 최대 400만원 설비개선 지원

전북특별자치도가 축사화재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전기적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올해 총 4억3000만원을 투입, 전기안전점검과 연계한 맞춤형 안전설비 지원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축사화재 원인의 47%가 전기적 요인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부주의(24%)보다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 전기설비와 분전반 오염 등 전기 관리 취약 요인이 화재 위험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도는 '축사전기안전점검 시범사업(9,500만원)'과 '축사화재 안전시스템 지

원사업(3억800만원)'을 연계해 추진한다. 단순 화재예방 장비 지원을 넘어, 전기안전점검 결과를 토대로 실제 필요한 시설 개선이 이뤄지도록 사업 구조를 개편했다.

도는 농가당 최대 400만 원 한도로 화재예방 장비와 전기안전 설비 개선 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는 소방 화재위험등급 C·D등급 축사 가운데 양돈·양계 농가 190개소를 대상으로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협업해 전기안전점검을 시범 실시한다.

점검은 열화상 장비를 활용한 전기설비 진단과 분전반 클리닝 등 현장 중심으로 진행된다.

즉시 조치 가능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하고, 개보수가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축사화재 안전시스템 지원사업과 연계해 맞춤형 전기안전설비 개선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북도는 축사화재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전기적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올해 총 4억3000만원을 투입 맞춤형 안전설비 지원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민선식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축사 화재는 한 번 발생하면 피해 규모가 매우 큰 만큼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전기안전점검을 중심으로 사전 예방부터 사후 관리까지 이어지는 전주주기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장정철 기자

윤준병, 지방선거 후보자 고액 후원금 의무공개법 발의

선거공보에 후원내역 의무 기재 5년간 연 300만원 이상 기부 시 공개 공천·대가성 후원 의혹 사전 차단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지방선거 후보자의 선거공보 후보자정보 공개자료에 국회의원 고액 후원금 기부 내역을 공개하도록 하는 '지방선거 후보자 고액 후원금 의무공개법'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후보자가 국회의원 후원회에 기부한 내역은 공개 대상에서 빠져 있어 제도적 사

각지대라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며 이같은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현행 현행법상 지역구 지방의원 선거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후보자가 책자형 선거공보를 제출하는 경우 △재산 상황, △병역 사항, △최근 5년간의 소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납부 실적, △전과 기록, △직업·학력·경력 등 주요 인적사항을 후보자정보공

개자료에 게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액 후원 내역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다. 때문에 지방의원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에 입후보하려는 자가 국회의원 후원회에 고액 후원금을 기부하는 것이 공천이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위한 청탁성 또는 대가성 후원이 아니냐는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윤 의원은 지역구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와 그 배우자가 선거일이 속한 연도를 포함해 최근 5년간 국회의원 후원회에 연간 300만 원 이상의 고액 후원

금을 낸 경우 해당 내역을 후보자 정보 공개 자료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윤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고액 후원금이 공천이나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는 의혹을 사전에 차단하고, 지방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며 "국회 정개특위 위원으로서 계속해서 공직선거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정한 선거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서울=김영목기자

이원택 "도 RE100·AI 산단 유치 준비 서둘러야"

300조 지방투자시대 선제 대응 "기업 찾아올 조건 먼저 갖춰야" 민중당 차원 생태계 전환 촉구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300조원 규모의 지방투자 시대에 전북이 철저한 준비로 RE100 산업 단지, 에너지 기반 AI 신산업, 피지컬 AI를 유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과 국내 주요기업 총수들이 지방투자 확대와 청년일자 리 창출에 300조원 규모를 투자키로 합의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방주도성장 전략에 대한 민중당의 성장 축을 재편하는 역사적 전환"이라며 "향후 5년간 300조 원에 달하는 지방 투자와 대규모 청년 채용 계획은, 지역이 준비만 되어 있다면 산업과 일자리, 인구 구조까지 바꿀 수 있는 결정적 기회"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냉정하게 현실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며 "현재 제시된 투자 지도에서 전북의 존재감이 크지 않다. 왜 기업이 전북에 오지 않는가를 묻기보다, '전북은 기업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전북 행정을 직격했다.

또 "준비 없는 환영과 구호만으로는 지방주도성장을 이룰 수 없다"는 지방주도성장을 이룰 수 없다"면서 "전북에는 분명한 강점이 있다. 전국 최고 수준의 재생에너지



이원택 의원

잠재력, 그리고 가장 빠르게 에너지 기반 산업 전환이 가능한 지역이라는 조건은 다른 지역이 쉽게 따라올 수 없는 경쟁력"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전북이 에너지 생산지를 넘어, 첨단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해야 한다. 동시에 기업이 전북에 뿌리 내리고 성장할 수 있도록 소재·부품·장비 산업 육성, 연구개발 인프라 확충, 지역 인재 양성 등 산업생태계 전반의 체질 개선을 병행해야 한다"며 "기업 유치를 외치는 선언에 달하는 지방 투자와 대규모 청년 채용 계획은, 지역이 준비만 되어 있다면 산업과 일자리, 인구 구조까지 바꿀 수 있는 결정적 기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속도의 시간"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지방주도성장 정책과 대기업들의 지방 투자 확대라는 이중의 기회를 결코 놓쳐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전북이 이번 기회를 반드시 잡을 수 있도록, 재생에너지 기반 신산업과 피지컬 AI를 중심으로 실현 가능한 산업생태계를 속도감 있게 구축해 전북의 대전환을 만들어 가겠다"며 "전북이 지방주도 성장의 핵심축으로 우뚝 서도록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호소했다.

/서울=김영목기자

전북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강화...460ha 수종전환

전북도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올해 111억 원의 방제예산을 투입하고, 460ha 규모의 수종전환 방제를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전년도 방제예산 80억 원 대비 31억 원을 증액한 것으로, 확산 차단을 위한 선제적 대응과 수종전환 중심의 방제전략을 본격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해 단목 제거 중심의 단기 방제를 넘어, 숲의 구조 자체를 바꾸는 중장기 대응에 나선 것이다.

최근 이상기온과 기후변화로 매개충 활동 기간이 길어지면서 군산, 익산, 정읍, 김제, 순창 등 집단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피해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도는 반복 피해 지역에서는 단순 고사목 제거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방제 방향을 전환했다.

수종전환은 재선충병이 반복 발생하는 소나무림을 병해충과 산불에 강한

다른 수종으로 바뀌 감엽 고리를 원천적으로 끊는 방제 방식이다. 재선충은 소나무류에서만 생존할 수 있는 특성이 있어, 숲에서 소나무류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확산을 구조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수종전환 대상지는 반복 피해지와 집단 발생지를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현장 여건에 따라 단목 제거, 소구역 모두베기, 강도 간벌, 나무주사 등을 병행 적용해 지역 맞춤형 방제를 실시하고, 훈증 처리목을 신속히 수집해 재감염원을 차단한다.

방제 과정에서 발생하는 산림 부산물은 산림바이오매스로 재활용하는 자원순환형 방제 체계도 함께 추진된다.

이순택 전북도 환경산림국장은 "방제 기간 동안 수종전환을 중심으로 예산과 인력을 집중 투입해 확산 차단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겨울철 안전운전을 위해 알아야 할 도로표지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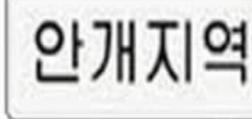
미끄러운 도로
(주의표지판)



내리막 경사
(주의표지판)



노면 상태
(보조표지판)



안개 지역
(보조표지판)



전주시 '상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모집

3월 16일 ~ 6월 19일까지

전주시 '2026년 상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자 공개 모집이 시작된다. 모집은 오는 9일부터 13일까지 전주시민 취업취약계층 대상으로 진행된다. 모집자격은 현재 18세 이상인 근로능력자 중 가구소득이 기준중위 소득 70%

이하이면서 가구 재산이 4억원 미만인 전주시민이다. 단, △공공근로 사업 등 타일자리사업 참여자 △1세대 2인 이상 참여자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 기간은 오는 3월 16일부터 6월 19일까지다. 시는 △청년물 매니저 사업 △전주맛

배달 홍보지원사업 △치매예방 및 치매환자관리사업 등 9개 부서, 10개 사업에 총 11명을 배치할 예정이며 △다문화가정 외국문화 지원 사업 등 10개부서 11개 사업에 총23명을 배치할 예정이다. 근로조건으로는 1일 7시간씩 주 35시간으로 다문화가정 외국인 지원사업 경우 4시간씩 주20시간이다.

임금은 시급 10,320원과 간식비 1일 5000원에 주·월차, 공휴일 유급수당이 추가로 지급될 예정이다. 2026년 상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모집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누리집(www.jeonju.go.kr)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김영태 기자

전주시 고향사랑기부제 기부 동참 이어져

5일 이종연 (주)KTNF 대표 고향사랑기부금 500만원 기부

전주시 고향사랑기부제 고객 기부 동참 행렬이 2026 새해 이어지고 있다.

5일 (주)KTNF 이종연 대표는 5일 전주 발전을 위해 써달라며 전주시에 고향사랑 기부금 500만원을 기부했다.

KTNF는 클라우드 환경과 옛지 컴퓨터 환경에 최적화된 서비스를

위해 서버 회로 및 시스템 기술을 제공하는 기업이다.

기업은 지난 2001년 설립 이후 국내·외 컴퓨팅 산업의 미래지향 기술을 선도하고 있다.

기부금 전달에서 이종연 대표는 "전주시 고향사랑기부제 동참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기부에 따른 지역 발전 보탬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전주시의 발전을 응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태 기자

전주시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 시행

3월부터 일반음식점·제과점에 반려동물 동반 출입 가능

내달부터 전주시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가 시행된다.

전주시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에 따라 3월 1일부터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시행되는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 중요 특징은 반려동물 보호자 이용 편의 향상과 비반려인 이용 선택권 보장

을 위한 것으로 안전 기준 이행 음식점에 한해 반려동물 동반 출입이 허용되는데 있다.

반려동물 동반 출입 대상 동물은 개와 고양이로 제한된다.

주요 내용에는 △시설규정 △출입관리 규정 △식품취급시설 내 출입제한 △이동금지 규정 △교차오염 방지 위한 위생관리 의무 부과 △예방접종 여부 확인 △행정부제 등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위생·안전관리 기준이 적용된다.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운영 희망

업소는 △출입문에 '반려동물 동반 출입 가능 음식점' 안내문 게시 △예방접종 여부 확인 △식품취급시설에 출입 제한 △반려동물 이동제한 고지 및 이동통제 △교차오염 방지 등을 위한 위생관리 의무 등 식품위생과 안전 확보 관련 시설을 적법하게 갖춰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

단, 시설기준 및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시정명령이나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정소민 기자

전북환경청 설 연휴 환경오염행위 특별 감시

감시 실효성 제고 3단계 추진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전북지방환경청은 설 연휴기간 중 주요 산업단지 및 상수원호수 주변 하천 등 환경오염 취약 사업장·지역을 중심으로 특별 감시활동을 추진한다.

환경오염물질 무단배출 등의 불법행위 사전예방을 위해 고 밝혔다.

특별 감시는 오는 9일부터 24일까지 약 3주간 걸쳐 군산, 익산 등 주요 산업단지 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및 주변 하천, 공공 하·폐수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을 대상으로 실시될 계획이다. 특히 감시의 실효성 제고 위해 3단계로 나눠 추진한다.

감시 1단계는 2월 9일부터 13일까지는 용담호·옥정호 상수원 수계 유입지역, 대기·수질 오염물질 다량 배출 및 최근 3년간 환경법 위반 170여개소 대상으로 사전점검 체크리스트, 환경법령 주요 위반사례집을 배포하여 사전예방 및 자율점검을 유도한다.

유해화학물질 취급 및 폐수 다량 배

출 등 중점 감시사업장 약 10개소를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하며, 공공 하·폐수처리시설 약 4개소에 대한 현지 점검과 공장 밀집지역인 군산·익산 등 주요 산업단지 및 주변 하천을 중심으로 감시활동도 병행해 실시한다.

2단계 2월 14일부터 18일까지는 완주, 정읍 등 주요 산업단지와 상수원 호수인 용담호, 옥정호 주변 하천 등 환경오염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순찰을 강화한다.

환경오염사고 발생 시 신속 대응 위한 상황실을 운영한다.

3단계 2월 19일부터 24일까지는 연휴기간 동안 오염행위 등이 우려되거나 확인된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과 장기간 시설 가동을 중단한 소규모·영세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방지시설 재가동시 유의사항 등 기술지원할 계획이다.

설 연휴기간 중 폐기물 불법소각, 수질오염 사고 등 환경오염행위 신고는 국민 누구나 환경신문고 국민없이 128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정소민 기자

전주시의회 '전북혁신도시 금융중심지 지정' 촉구

신규정 의원 대표발의 전북혁신도시 금융중심지 지정 촉구 건의안 채택

전주시의회가 전북혁신도시를 금융중심지로 지정할 것을 촉구했다.

전주시의회는 5일 열린 제42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신규정 의원(조춘, 여의, 혁신동)이 대표 발의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전북혁신도시 금융중심지 지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신 의원은 건의안에서 "전북혁신도시는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이전을 계기로 글로벌 자산운용사가 집적된 금융 환경을 조성하는 등 연금기금 중심 자산운용 기반을 축적해 왔다"며 "최근 KB 금융그룹과 신한금융그룹이 전북혁신도



전주시의회가 전북혁신도시를 금융중심지로 지정할 것을 촉구했다

시에 자산운용·자본시장 기능을 집적한 금융 거점 구축을 공식화하면서 금융 생

태계가 새로운 단계로 전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가 금융중심지 지정을 신청한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개발계획을 추진한 전국 최초 사례로 정책적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에 전주시의회는 △전북혁신도시의 금융중심지 조속 지정 △서늘·부안 금융중심지와의 기능적 분업·연계 구조 구축 △금융기관 집적과 전문 인력 양성 등 국가 차원의 종합 지원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건의안은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국회 및 기획예산처,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에 송부할 예정이다.

/정혜민 기자

전주시 설 명절 농수산물도매시장 환경 개선·안전 강화

설 명절 대비 대청소·합동 안전 점검

전주시는 시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유통환경 제공을 위해 도매시장 환경정비와 시설물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

환경정비는 설 명절 성수기 대비해 시장 내·외부 위생 및 안전 취약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실시된 환경정비에는 전주시 농업정책과 소속 직원과 전주원에농협·수

협중앙회 전주공판장·전주청과물·전주수산물시장 등 농수산물도매시장 4개 법인 직원, 중도매인 등 유통 종사자 등 20여 명이 참여했다.

참여자들은 △경매장 바닥 청소 및 적재물 정리 △중도매인 점포 내·외부 정리 정돈 △공중화장실 청소 △주차장 부지 및 주변 일반쓰레기 수거 △농산물 잔재물처리장 주변 환경정비 등 시장 전반에 대한 환경정비를 실시했다.

특히 법안별로 취약지역을 지정해 중점 정비를 추진한다.

또 경매장 주변과 저장고 인근, 활어동 뒤편, 선별처리장 주변 등을 중심으로 정비가 강화된다.

이와 함께 재난 예방 차원에서 도매시장 시설물에 대한 안전 점검도 실시하고 있다. 점검은 오는 9일까지 진행되며 전기·소방 등 분야별 전문업체와 합동으로 도매시장 6개 동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정소민 기자

전주덕진경찰서 주민안심 설 명절 특별 치안대책 추진

범죄예방진단팀 범죄예방활동

전주덕진경찰서 조영일 서장은 설 명절 기간 주민 안심 위한 오는 9일부터 18일까지 특별 치안대책을 추진한다.

특히 조 서장은 최근 금 강도 및 절도 예방에 주력할 방침이다.

이유로는 손님이 가장해 귀금속을 착용하며 살것처럼 하다 갑작스런 절취 수법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김영태 기자

예수병원 구바울기념의학박물관 국비 지원사업 선정

'2년 연속' 선정 의료·선교 핵심 문화시설 입지 다져

예수병원 구바울기념의학박물관(관장 주명진)이 2025년도 국고 및 지방비 지원사업 3개 분야에 동시 선정되는 쾌거를 안았다.

예수병원의 선정은 2년 연속 국비 확보로 큰 의미가 따르고 있다.

특히 구바울기념의학박물관은 호남 지역 근대 의료·선교 역사를 계승하는 핵심 문화시설로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다졌다.

박물관은 최근 (사)한국박물관회가 주관하는 △2026 전문인력 지원사업 △2026 국가문화유산 DB화 사업을 비롯해, 전북특별자치도와 전주시가 지원하는 △박물관 문화사업 지원 대상에 최종 선정되어 올 한 해 본격적인 운영 고도화에 나선다.

먼저 '전문인력 지원사업'은 박물관의 학예 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 인력의 인건비를 국고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구바울기념의학박물관은 2025년 도 운영 성과 평가에서 '우수관'으로 선정된 데 이어, 이번 2026년 1차 모집에서도 최종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



다. 이를 통해 소장 유물의 심층 연구와 전시·교육 등 박물관 본연의 기능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또 '국가문화유산 DB화 사업'에도 전국 30개 선정관 중 하나로 이름을 올렸다. 박물관은 문화유산표준관리 시스템을 활용해 소장 중인 의료·선교 회귀 유물을 디지털 데이터로 구축하고, 체계적인 관리와 함께 대국민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특히 지자체가 지원하는 '박물관 문화사업' 부문에서는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액된 3500만원 규모의 예산을 확보하는 쾌거를 이뤘다.

확보된 예산은 특색 있는 기획 전시와 교육, 체험, 탐방 등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 확대에 쓰인다.

/정소민 기자

전주시복지재단 "사람중심 복지도시 전주" 실현 앞장

간병비·통학비 지원부터 금융복지 상담까지.. 공적 지원 한계 보완 재단 특화사업 안내

재단법인 전주시복지재단(이사장 윤방섭)은 시민들의 기부와 후원을 복지 현장으로 연결하는 전주형 복지안전망 실현에 앞장선다.

5일 전주시복지재단은 구·동 사례관리

담당자 50여명을 대상으로 '2026년 복지안전망 구축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는 직기 지원이 어려운 복지사각지대 가구를 신속히 발굴해 재단 맞춤형 지원사업을 활용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특히 재단은 설명회를 통해 실제 사례 중심으로 실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 현장 위기 직면 시민들에게 보다 정확

하고 신속하게 연계할 수 만드는 데 중점을 뒀다.

이로 인해 △전주형 복지공백 채움사업 △사랑나눔 간병비 지원사업 △저소득가정 청소년 통학비 지원사업 △위기 고립가구 일상회복 지원사업 등 주요 나눔사업이 공유됐다.

또 △희망사다리 금융복지사업(채무상담, 금융복지교육 등) △나눔문화 활성화

/정소민 기자

전북경찰 고령자 "빛"나야 "안전"하다

에스라이팅 박병인 대표 고령자 교통안전용품 실버카 안전조명등 200개 기탁

전북경찰청(청장 김철문)은 5일 LED 조명등 전문업체인 (주)에스라이팅과 한국교통안전공단 전북본부와 함께 고령자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용품 기탁식을



가졌다.

(주)에스라이팅 박병인 대표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이용하는전동휠체어 등 실버카에 부착하는 안전조명등 200개(2000만원 상당)를 전북경찰청에 기탁했다.

경찰은 도내 14개 시·군을 순회하며 진행하고 있는 고령자 교통안전교육 시

동휠체어 등 실버카 이용 고령자를 대상으로 전달 받은 안전조명등을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설치해 나갈 계획이다.

또 실버카 안전조명등은 야간이나 새벽 시간대 시인성을 높여 고령자 안전 확보를 기대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민·관·공 고령자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 위한 협력이 함께 다짐했다.

/정소민 기자

전북신보, 1100억 규모 민생안정 자금지원

28일까지 소상공인 특례보증 등 맞춤형 지원·자금지원 총력

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이하 '전북신보')은 도내 소상공 자금난 해결을 위해 총 1100억원 규모 보증에 나선다.

지원은 내수경기 침체에 따른 경영 부담이 가중된 영세 자영업자들의 안정적인 자금 운용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민생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재단의 신규보증은 오는 28일까지 이어진다.

상품은 신규보증 상품인 '소상공인 보증 자금 금융지원 특례보증', '시·군 희망더드림 특례보증'과 대한상품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특례보증', '민생회복 응급구조 119 특례보증' 등이다.

특히 이번 민생안정 자금은 설 명절을 앞두고 운전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이 저리로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자의 일부를 도(道)와 시·군에서 보전해준다.

이로써 소상공인이 납부하는 금융비용을 실질적으로 경감 시킬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 함께 전북신보는 소상공인이 적기에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신용보증 신청 시 기존 평균 7일가량 소요되던 보증 처리 기간을 3일로 단축하는 신속지원 체계를 운영하고,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증 처리 기간을 3일로 단축하는 신속지원 체계를 운영하고,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정소민 기자

전북농협 '신뢰회복 자정 결의대회' 개최

부패척결·윤리경영실천

전북농협은 5일 투명한 조직문화 확립과 대국민 신뢰 제고를 위한 '신뢰회복 자정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전북농협 임직원들은 결의대회를 통해 부패 척결과 윤리경영을 실천함으로써 "국민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강령 의지를 공표했다.

그러면서 농협 임직원들은 △부정 청탁 근절 △법령·규정 준수 △부무 기강 확립 △윤리경영 실천 제창과

함께 청렴한 전북농협 구현을 굳게 다짐했다.

전북농협 임직원들은 "결의는 농업인·국민과의 약속이다!"며 "한사람 한사람 ▷청렴하고 ▷분별하고 ▷명확하고 ▷3하고 태도로 최선을 다해 달라"고 강조했다.

특히 전북농협은 준법 감시 업무 강화와 투명한 내부 통제 속 안심·신뢰 경영바탕을 이뤄 국민모두의 험터로 이어갈 방침이다.

/김영태 기자

경진원, 농공단지 입주기업 경영활성화 참여기업 모집

총 9개사 내외 선정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은 농공단지 입주기업 경영활성화 지원사업의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본 사업을 통해 △기술사업화 (공정

개선, 시제품 제작) △마케팅 활성화 (특허, 품질인증, 홍보물 제작, 전시회 참가, 판촉 프로모션 등) 등이 지원된다.

특히 기업당 최대 4천만원 한도(자부담 10% 별도)로 신청할 수 있으며 총 9개사 내·외를 선정할 예정이다.

대상은 도내 13개 시·군 농공단지 입주 제조업 기반 중소기업 등이다.

앞서 2025년도 10개사를 선정해 지원한 결과 참여기업 평균 매출액이 8.6%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며 농공단지 입주기업 경쟁력 향상에 기여한 바 있다.

모집 신청은 오는 27일 오후 5시까지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종합지원시스템(www.jbok.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또 경진원 누리집(www.jbba.kr) 내 모집공고를 활용하면 된다.

/김영태 기자

전북청년창업사관학교 청년창업가 40인 '힘찬 비상'

제15기 졸업식 성료 청년창업 허브 자리매김

청년창업 요람인 전북청년창업사관학교(이하 전북청창사)가 전북지역 경제 활성화의 새로운 주인공 40인을 세상에 내놓았다.

5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 전북청년창업사관학교는 '제15기 졸업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15기 졸업생들은 지난 1년간 창업 교육 및 코칭, 제품개발 사업화자금, 사무공간 등 전폭적으로 지원 받았다.

그 결과, 매출액 105억원 달성, 신규 고용창출 50명, 총 7.4억원 규모 투자 유치 등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며 전북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었다.

특히 이번 졸업식은 졸업생들이 지난 1년간 심혈을 기울여 개발한 성과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제품 전시관이 별도로 마련돼 내빈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날 전시된 졸업 제품들은 향후 인교하게 될 제16기 후배 창업가들에게 실질적인 목표와 비전을 제시하는 좋은 본보기로 기대된다.

우수 졸업기업으로는 생물학적발효기술로 과일맥주를 제조한 맥락(대표 정승연,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청장상), 저당·고단백 참살떡 '소이떡'을 개발한 ㈜아란푸드랩(대표 한아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상), 생성형 AI 콘텐츠 제작 시스템의 비피엑스시(대표 박근범, ㈜전북일보사 사장상) 등이 선정

됐다.

전북청창사는 2018년 개소 이후 현재까지 380명의 청년창업 CEO를 육성했다.

이들의 누적 매출은 1147억 원에 달하며, 830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했다.

전북청창사는 아이템 발굴, 시제품 제작, 판로개척, 투자 연계, 후속성장 지원까지 창업 전 과정에 걸친 지원체계를 통해 전북지역 청년창업의 허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정소민 기자



발명진흥회 전북지부 'IP나래프로그램' 지원기업 모집

3월 11일까지 1차 모집

한국발명진흥회 전북지부(지부장 윤정호)는 'IP 나래 프로그램' 지원기업을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1차 모집은 3월 11일 오후 6시까지 지역지식재산센터 사업관리시스템(pms.ripco.org)을 통해 신청을 접수 받는다.

'IP 나래 프로그램' 지원기업 모집은 전북 지역 창업기업을 대상으로한 보육기술 독점적 권리 도출 지원과, 지식재산 기반 경영 위한 기술·경영 융복합 컨설팅 제공을 위해 마련됐다.

지원기준은 본사(본점) 소재지를 기준으로 관할 지역에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지사(지점) 또는 기업부설연구소가 해당 지역에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경우에는 일정 요건 충족 시 신청이 가능하다.

필수 제출서류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중소기업확인서 △창업기업확인서 △사업추진(활용)계획서이다.

또 선택 제출서류로는 △최근 3년 재무제표 △직무발명보상규정 △기업부설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 인증서 등이다.

신청 절차는 서류 제출을 완료한 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턴트 현장실사 이후 1차 서류심사와 2차 선정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지원 규모는 최대 2500만원 이내(정부지원금 1500만원 이내)이며, 기업분담금은 40%(현금 20%, 현물 20%)이다.

최종 결과물로는 특허출원 1건과 IP 기술경영 융복합 컨설팅 결과보고서가 제공된다.

'24년 소상공인 IP창출지원을 시작으로 '25년 IP나래프로그램을 거쳐 '26년 글로벌 IP스타기업에 신청하는 등 단계적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정소민 기자

중소기업확인서 △창업기업확인서 △사업추진(활용)계획서이다.

또 선택 제출서류로는 △최근 3년 재무제표 △직무발명보상규정 △기업부설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 인증서 등이다.

신청 절차는 서류 제출을 완료한 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턴트 현장실사 이후 1차 서류심사와 2차 선정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지원 규모는 최대 2500만원 이내(정부지원금 1500만원 이내)이며, 기업분담금은 40%(현금 20%, 현물 20%)이다.

최종 결과물로는 특허출원 1건과 IP 기술경영 융복합 컨설팅 결과보고서가 제공된다.

'24년 소상공인 IP창출지원을 시작으로 '25년 IP나래프로그램을 거쳐 '26년 글로벌 IP스타기업에 신청하는 등 단계적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정소민 기자

"정성 담은 우리 농산물로 설 명절 마음 전하세요!"

농진청, 명절선물 농산물 가공 상품 39종 선정

농촌진흥청은 오는 17일 설명절 선물에 어울리는 농산물 가공 상품을 선정해 소개했다.

농산물가공상품은 전국 시군농업기술센터가 운영하는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생산품이거나 농촌진흥청 지원 시범 사업을 통해 개발한 제품 등으로 선정됐다.

가격대는 5만원 이하의 실속형 제품 등이다.

특히 농촌진흥청의 올해 추천 상품은

'음료류', '과자·빵·떡류', '가공식품류', '절임·젓·장류', '주류' 등 11개 품목을 포함했다.

생활밀착형 상품으로는 '수제 강정', '강단장', '도라지정', '배 생화탕', '참기름', '소금', '표고버섯' 등으로 구성됐다.

지역농산물 가공 제품 선물 추천 목록은 농촌진흥청 농업기술포털 '농사로' 누리집 알림판을 활용하면 된다.

상품별 세부 정보와 구매처 등은 안내문에 표시된 정보부너로 확인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은 우리 농산물 가공 상품 소비 촉진을 위해 추석과 설 명절 농산물 가공 상품 선물 안내문을 제작해



온라인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김영태 기자



발명진흥회 전북지부 '지식재산 긴급지원 사업' 추진

한국발명진흥회 전북지부는 '지식재산 긴급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사업은 2026년도 전북지역 중소기업 지식재산(IP)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이번 사업은 총 3회에 걸쳐 기업 모집이 이어진다. 1차 모집은 오는 27일 오후 6시까지이며 2차(4~5월)와 3차(6~7월) 모집도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단, 예산 소진 여부 및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일정은 변동될 수 있다. 사업 신청 온라인(www.ripco.org/pms) 회원가입

후 지원사업 공고 확인 후 관련 서류 제출. 특히 사업은 특허·브랜드·디자인 등 지식재산 관련한 애로사항에 대해 빠른 해결 위한 맞춤형 지원사업이 제공된다.

이에 따라 전문 컨설턴트가 상담부터 ▷전략 수립 ▷실행 지원까지 원스톱 지원한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발명진흥회 전북지부(전북지식재산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김영태 기자

전기공사협회 전북도회, 제59회 정기총회 개최

5일 한국전기공사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 제59회 정기총회가 개최됐다.

특히 전북특별자치도회 제59회 정기총회에서는 신임 도회장과 신임 부회장이 선출됐다.

신임 회장에는 최병인 주식회사 대광

전력 대표이사 신임 부회장은 김용희 효성중전기 주식회사 대표이사 전기공사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를 이끌게 됐다.

신임 최병인 도회장과 신임 김용희 부회장은 앞으로 3년간 도회를 견인한다.

이어 도회 대의원 17명 선출도 이어졌다.

이날 총회는 업계 발전을 위해 헌신한 유관인사와 회원에 대한 포상 및 전기공사공제조합장학회 장학증서 수여식과 중앙회장 선출에 따른 투표도 함께

했다.

신임 최병인 도회장은 "회원여러분이 필요할 때 힘이 돼주고 회원사와 함께 성장하는 협회,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협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소민 기자

전북 건설단체 연합회 '완주·전주 통합' 환영

'완주·전주 통합은 전북 미래 경쟁력 핵심'

전북건설단체연합회(회장 소재철)는 5일 완주와 전주의 통합 추진에 대해 지역 발전의 중대한 전환점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전북건설단체연합회(회장 소재철)는 5일 완주와 전주의 통합 추진에 대해 지역 발전의 중대한 전환점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전북건설단체연합회(회장 소재철)는 5일 완주와 전주의 통합 추진에 대해 지역 발전의 중대한 전환점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역의 도시개발과 인프라 혁신을 가속화 할 수 있는 중대한 기회"라며, 통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건설 산업의 긍정적 효과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특히 이번 통합은 완주의 넓은 개발 가능 부지와 산업단지 자원, 전주의 풍부한 인프라가 결합되면서 무분별한 외곽 개발이 아닌 전략적이고 균형 잡

힌 도시 성장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했다.

대규모 주택 건설과 교통망 확충 등 건설물량 증가를 통해 침체된 지역경제 전반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전북건설단체 연합회 회장은 "완주와 전주는 이미 생활권과 경제권이 하나로 묶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구역

이 분리돼 있어 일관된 도시 발전 계획을 수립하는 데 큰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통합이 실현될 경우 △도시 확장 및 재개발 △교통망 확충 △친환경 스마트시티 조성 등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들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소민 기자

농진청 실천형 혁신모임 '그린프런티어' 시작

인공지능(AI) 대전환 시대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하고 합리적 업무적용 실천형 혁신모임 '그린프런티어' 활동이 시작했다.

5일 농촌진흥청은 혁신모임 '그린프런티어 첫 여정의 날' 행사를 개최해 2026 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그린프런티어란 '농업·농촌·청'을 의미하는 '그린(Green)'과 개척 정신을 의

미하는 '프런티어(Frontier)' 합성어이다.

행사는 20~30대(MZ세대) '그린프런티어' 직원 18명 위촉장 수여 및 청장과의 소통의 시간 등을 가졌다.

이들은 올 한 해 동안 '필요할 일 버리기', '불합리한 관행 타파' 등 일하는 방식 혁신과 조직문화 개선 활동 등을 펼칠 예정이다.

/김영태 기자

건강관리협 전북도지부, 사랑의 후원금 전달

5일 한국건강관리협회 전북특별자치도지부지부 임진영 본부장은 전주시 자원봉사센터를 방문해 설맞이 후원금 200만원을 전달했다.

전달된 후원금은 관내 취약계층 생필품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앞서 건협 전북지부는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오고 있다.

특히 전문적인 건강검진과 건강증진 사업에 특화된 보건 의료기관으로 주민들의 일상 속 건강을 지키고 있다.

/김영태 기자

“신설 학교 재정집행 점검, 적기 개교 뒷받침”

전북교육청, 2026년 학교 신설비 재정 집행 점검단 가동

전북교육청은 신설 학교 사업의 재정 집행 상황을 체계적으로 점검하며 안정적인 개교 추진을 위해 ‘학교 신설비 재정집행 점검단’을 운영한다고 5일 밝

혔다. 전북교육청은 현재 12개교를 신설중에 있으며 올해 4개교, 2027년 4개교, 2028년 2개교, 2029년 2개교가 개교 예정이다.

점검단 14명은 4일 첫 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점검단은 신설 학교에 대한 재정 집행 현황 점검과 관계 부서 간 협업을

통해 예산 집행 효율성 높이고자 구성·운영된다.

매월 사업 추진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집행 지연 요인을 사전에 점검해 재정 운용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분기별로 관계 부서 실무협의 회를 개최해 재정 집행 현황을 공유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안

에 대해 협의·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점검단 운영 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 관계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즉시 보완, 대응할 계획이다.

김정주 행정과장은 “재정 집행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여 신설 학교가 계획대로 개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혜민 기자

중등교사 임용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총 298명 선발

전북교육청은 2026학년도 중등 학교 교사, 보건·사서·전문상담·영양·특수(중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최종합격자 298명을 발표했다.

총 326명(일반 295명, 장애 31명) 선발하는 이번 시험은 제1차 시험 합격자 454명(일반 451명, 장애 3명)을 대상으로 제2차 시험을 거쳐 최종 298명(일반 295명, 장애 3명)을 선발했다.

개인별 합격여부와 성적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12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 교직원 채용 시스템(https://edurecruit.go.kr)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이번 임용시험은 교육학 및 전공 평가인 제1차 시험과, 수업 실연 및 교직적성 심층면접을 포함한 제2차 시험으로 진행됐다.

합격자 결정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자격 소지자 중 1·2차 성적과 가점 등을 합산해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했다.

신규 임용 예정자들은 앞으로 현장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집합 및 원격 연수를 병행한 직무연수를 이수하게 된다.

연수 일정과 수강 신청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교육청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혜민 기자

군산대 ‘지역인재 7급 합격’ 실전 대비 총력 지원

재학생 역량 강화

국립군산대학교 미래인재반은 공무원 시험 준비 재학생 역량 강화를 위해 7급 공무원 육성 PSAT 파이널 특강을 운영했다.

특강은 지난 2일부터 5일까지 3일간 7급 공무원 시험 핵심 관문인 공직적격성평가(PSAT) 대비를 위해, 언어논리·

자료 해석·상황판단 과목을 중심으로 이론과 실전 문제를 병행 과정으로 구성됐다.

특히 2026년도 전국 지역인재 7급 수습 직원 선발시험을 앞두고 학생들의 실전 감각과 시험 대응 역량을 높이는 데에도 중점을 두었다.

이번 프로그램은 전국 지역인재 7급 수습 직원 선발시험과 국가직 7급 공채

를 준비하는 학생들의 합격 가능성 제고와 학습 네트워크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교육에는 미래인재반 참여 학생과 본교 재학생 중 12명이 선발돼 전 과정을 수료했다.

마지막 날에는 채용 정보 특강과 실전 모의 테스트를 통해 실제 시험 환경을 경험하고 개인별 강·약점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 2월 중 지역인재 7급 추천자를 대상으로 실전 모의 테스트를 1회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국립군산대는 앞으로도 미래인재반을 중심으로 공직 및 취업 진출을 희망하는 재학생들을 위해 실전형 교육과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김영태 기자

전북교육청, 2026학년도 특수학급 54개 신·증설

전북교육청이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학습권과 학교 선택권 보장을 위해 올해도 특수학급을 대폭 증설한다.

전북교육청은 2026년 일반학교 내 특수학급 54개를 신·증설한다고 5일 밝혔다.

유치원 3학급, 초등학교 24학급, 중학교 16학급, 특수학교 13학급 등이다.

이는 2024년 61학급, 지난해 50학급에

이은 3년 연속 과감한 학급 신·증설로 주목받는다.

전북교육청은 지난 2023년부터 특수교육대상자가 1명이라도 특수학급을 설치할 수 있도록 특수학급 신·증설 기준을 마련했다.

아울러 지난해 특수학급 설치 조례 제정, 사전예고제 도입 등을 통해 특수학급 설치에 대한 공교육의 책무성을 한

층 강화했다.

특수학교 설립도 계속된다. 장수군 계북면에 들어서는 동부산악권 특수학교인 ‘덕유샘학교’는 2026년 3월 개교한다.

덕유샘학교는 중학교 3학급, 고등학교 3학급, 전공과 1학급 등 총 7학급으로 시작하며 진로직업중심 특색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찾아오는 학교’, ‘모두가

존중받는 특수교육의 중심’으로 거듭날 예정이다. 또한 그동안 특수학교가 없어 장거리 통학의 불편함을 겪어왔던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군산의 문화예술체육 중점 특수학교와 전주 직업중점형 특수학교는 2027년 개교를 목표로 추진중이다.

/정혜민 기자



전북현대, 2026 시즌 신규 유니폼 라인업 공개

전북현대모터스FC가 2026시즌 함께할 신규 유니폼 라인업을 공개했다.

이번 유니폼은 K리그 최초 10회 우승으로 완성한 전북현대의 역사와 전통, 그리고 미래를 하나의 디자인으로 담아낸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전북현대는 라 데시마(La Decima, K리그 1 10번째 우승)를 콘셉트로, K리그 아이콘 대가 쌓아온 우승의 서사와 다음 도전을 상징한다.

또한 코리아컵 우승을 상징하는 패치를 전면 배치해, 현재의 성취를 구단의 공식 역사로 기록했다.

이번 유니폼의 핵심 디자인은 체커 보드(CHECKER BOARD) 패턴이다.

유니폼 전면 적용된 체커 보드(CHECKER BOARD) 패턴은 클래식하게 배

열린 시각 형태를 통해 ‘구단-팬-파트너’가 하나의 공동체로 연결돼 있음을 의미한다. 아울러 승리를 상징하는 레이스의 피니시 라인에서 착안해, “서로 연결된 움직임으로 완성된 승리를 이끌어갔다”는 의지를 담았다.

2026시즌 유니폼은 홈, 원정, 골키퍼(GK) 유니폼으로 구성되며, 홈은 녹색, 원정은 흰색, GK 유니폼은 강렬한 색감을 바탕으로 각각의 역할과 존재감을 강조했다.

모든 유니폼은 100% 재활용 소재로 제작됐다.

이는 구단이 지속가능한 스포츠 문화를 지향하는 실천적 선택이자, 현대자동차의 친환경적 가치와도 같은 궤를 이룬다.

전북현대는 유니폼을 통해 경기장 안팎에서 ‘지속가능성’의 메시지를 확산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번 신규 유니폼은 21일 20년 만에 재개되는 슈퍼컵 무대에서 처음 공개된다. /장정철 기자

한·일 레슬링 선수들, 전주대서 동계훈련 구슬땀

금메달리스트 김현우 등 임원지도자, 도 체육회 방문

전주대가 레슬링 동계 전지훈련지로 각광받고 있다.

5일 전북특별자치도체육회(회장 정강선)에 따르면 일본 가나가와 대학교 레슬링부와 국내 7개 레슬링 실업팀 등 100여명의 선수가 현재 전주대에서 전지훈련을 펼치고 있다.

가나가와 대학은 전주대와 지난 2015년 교류를 체결한 뒤 격년제(조정·방문)로 합동훈련을 진행, 선수들의 경기력을 향상시키고 있다.

또 수원시청과 평택시청, 조폐공사 등 국내 실업팀들도 일본 및 전주대 선수들과의 합동훈련을 통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일본은 레슬링 초강국이다. 실제 지난 파리올림픽에서도 8개의 금메달을 획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합동훈련과 친선경기 등을 통해 기량은 물론이고 국경을 넘는 우정을 쌓고 있다.

훈련이 한창인 가운데 최근 일본 가나가와 대학교 레슬링부 요시모토 오사무 감독(현 전일본레슬링대학연맹 회장) 등 임원 및 지도자, 제30회 런던올림픽 레슬링 금메달리스트인 김현우 선수가



도 체육회를 찾았다.

아울러 체육 발전 및 선수 경기력 향

상을 위해 물심양면 지원하고 있는 도 체육회에 감사를 전했다. /장정철 기자

겨울철 "난방비 절약"

난방비 절약 실천법

- 단열용품활용
- 실내 적정 온도 유지 (20°C)
- 방한복 착용
- 습도 유지 관리

난방비 절약 사용법

- 난방 시간대 조절
- 외출 모드 활용
- 온수 사용량 절약
- 온도 단계적 조심 (1°C)

군산문화관광재단 '2026 꿈의 오케스트라군산' 신규단원 모집

(재)군산문화관광재단이 '2026 꿈의 오케스트라군산'과 함께 할 신규단원을 오는 20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꿈의 오케스트라군산'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주관하는 사회통합적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이다.

재단은 올해에는 오케스트라의 음악적 완성도를 높이고 균형 잡힌 연주를 구성하기 위해 기존 8개 악기 부문에 호른 부문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를 바탕으로 한층 심화된 단계별 오케스트라 교육을 운영할 계획이다.

모집인원은 총 18명으로 바이올린 6명, 트럼펫 5명, 플루트 1명, 클라리넷 1명, 트롬본 1명, 호른 2명, 타악기 2명이다.

지원 자격은 군산 관내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10~13세(초등 3~6학년) 아동·청소년이다.

신규단원 모집 접수는 오는 20일까지이며 자세한 사항은 군산문화관광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는 재단 문화예술팀으로 하면 된다.

/군산=지송길 기자

"익산 시내버스, 더 똑똑해진다" 8일부터 노선번호 개편

익산시 시내버스가 더욱 쉽고 편리하게 바뀐다.

익산시는 시민들이 버스 번호만 보고도 어디로 가는지 직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시내버스 노선 체계를 개편하고 오는 8일 첫 차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그동안 김제, 군산, 강경, 심례 등 외곽 방면을 비롯해 시내순환 버스 중 일부는 경로가 다른데도 같은 번호를 사용해 시민들이 탑승 전 행선지를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시는 이번 개편을 통해 운행 경로별로 노선번호를 각각 분리·부여해, 시민들이 번호만 보고도 목적지를 확실히 알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했다. 노선 체계 정비와 함께 일부 노선의 종점과 운행 시간도 조정된다. 특히 이용객이 많은 34·35·36·37·38번 노선의 종점은 기존 동산동 비사벌아파트에서 유전도서관 앞 수도산공원 주차장으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해당 노선의 운행 시간표도 일부 조정되므로 이용 전 확인이 필수적이다.

시는 개편 초기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채널을 통해 변경 정보를 제공한다.

익산시 누리집 내 버스정보에서 '시내버스 노선 시간표'를 확인할 수 있으며, 모바일 '익산시 버스정보' 앱 또는 웹사이트에서 실시간 위치 확인도 가능하다. 아울러 익산시 민원콜센터를 통해 전화로 안내받을 수 있다.

/익산=최준호 기자

군산시, 서울광장 스케이트장 '갯토리' 홍보행사 열어

군산시가 5일 서울시청 앞 광장 스케이트장에서 지역을 대표하는 갯조어회를 활용한 자체 개발 캐릭터 '갯토리' 홍보 행사를 진행, 지역 특산품과 관광문화를 알렸다.

이번 행사는 서울특별시 주최·주관하는 '2025년 서문장터&서울광장 스케이트장' 직거래 장터에서 개최됐다.

시는 이번 행사에서 지역 특산물인 갯조리를 활용한 홍보물품 굿즈 및 먹거리와 볼거리가 풍성한 도시 이미지를 서울시민과 서울시청 직원들에게 선보였으며, 서울광장에 놀러온 시민들도 캐릭터 '갯토리'에 많은 관심과 즐거움을 보였다.

이번 행사에 힘입어 단위 방문객과 젊은 층을 중심으로 갯토리 굿즈 인스타 인증 이벤트 등도 성공적으로 진행됐으며, 참여자들이 자연스럽게 군산시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서 잠재적인 군산 관광여행 방문객을 모으는 계기도 마련됐다.

이성원 어업정책과장은 "서울광장 스케이트장은 시민들과 관광객이 찾는 공간인 만큼 '갯조어 도시 군산'을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였으며 군산시의 매력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자리였다"라고 말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익산시, 설 앞두고 970억 원 집행

명절 전 집행...경제 활성화·민생 안정 마중물 역할 기대

익산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나섰다.

시는 재정 자급이 경기부양의 마중물이 되도록 명절 전 970억 원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집행되는 자금은 △공사·용역·물품 등 시설비 160억 원 △사회복지 분야

350억 원 △농업 분야 130억 원 △경상적 경비 330억 원이다.

시는 취약계층 지원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사회복지·농업 분야의 재정을 신속히 집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임금과 하도급 대금은 '하도급 지급이 시스템'으로 직접 지급해 건설공사 하도급업체의 임금 체불과 대금 지급 지연을 방지한다.

또한 계약 업체들이 명절 전 자금 소요가 많은 것을 고려해 공사 대금뿐만 아니라 기성금과 선금급에 대해서도 집행에 속도를 낸다.

/익산=최준호 기자

시는 원활한 자금 집행을 위해 정기예금 만기도래 예정액을 포함해 1,000억 원을 대기자금으로 관리한다. 이를 위해 지방채 등 자체 수입과 국·도비 보조금 등을 추가로 확보해 자금 운용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설 명절을 맞아 시민과 기업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각종 대금을 신속히 지급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 집행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정읍시, 농경지 침수 피해 원천 차단

208개소 노후 용배수로 정비에 136억 투입

정읍시가 올해 시비 136억원을 투입해 관내 208개소의 노후 용배수로를 대대적으로 정비한다. 시는 본격적인 영농철이 시작되기 전 공사를 마무리해 농경지 침수 피해를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정비 사업은 최근 빈번해진 국지성 호우와 태풍 등 예측하기 어려운 기상 이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상이변으로 인한 강우 강도가 세지면서 기존 배수로의 용량 부족이나

노후화로 인한 농가 피해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정비 대상은 토사로 이뤄져 배수 효율이 떨어지는 구간이 주를 이룬다. 시는 이곳에 벤치플룸관 등 현대식 구조물을 설치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여름철 집중(수초) 발생을 억제해 물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집중호우 시에도 안정적인 통수 능력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시는 상습 침수 구역 해소를 위해 사업비 10억 2000만원(도비 5억 3000만원, 시비 4억 9000만원)을 투입해 별도의 정비 사업도 병행한다. 사

업지는 △재해취약 방재시설 사업(용배수로 3건, 0.97km) △산태인 신용지구 소규모 배수 개선 사업 △북면 마정1지구 대규모 경지 정리 사업 등이다.

시는 현재 진행 중인 실시설계를 조속히 완료하고 농번기가 시작되기 전에 주요 공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학수 시장은 "용배수로는 농업 생산성과 직결되는 핵심 기반 시설"이라며 "지속적인 정비 사업을 통해 농가의 소득 증대를 돕고, 고품질 농작물 생산이 가능한 안전한 영농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한국 유도 미래, 익산서 금빛 향안 구슬땀

2년 연속 국가대표 후보 선수 전지훈련 유치

대한민국 유도의 미래를 책임질 차세대 주역들이 익산에서 뜨거운 겨울을 보내고 있다.

익산시는 '유도 국가대표 후보선수 동계 전지훈련'이 지난 1월 25일부터 익산실내체육관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오는 11일까지 진행되는 동계 전지훈련은 대한체육회가 주최하고 대한유도회가 주관하며,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후원한다.

특히 이번 훈련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익산에서 열리고 있으며, 국가대표 후보선수단과 전국 실업·대학팀 선수 등 600여 명의 유도인이 모인 대규모 합동 훈련으로 진행되고 있다.

국가대표 후보선수단은 김현태 전임 감독을 포함한 지도자 8명과 전국에서 선발된 유망주 56명 등 총 64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들은 체계적인 프로그램



아래 기술과 체력 강화를 위한 고강도 훈련을 소화하고 있다.

또한 한국체육대학교와 용인시청, 인천시청 등 국내 최정상급 실업·대학팀을 포함한 전국 40여 개 유도팀, 550여 명의 선수들이 참여해 훈련의 깊이를 더하고 있다. 또한 단순한 기술 연마를 넘어 전국 유도인 간 교류의 장으로도 평가받고 있다.

이번 대규모 전지훈련은 지역경제에

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오는 11일까지 선수단과 관계자들이 익산에 머물며 숙박시설과 음식점 등을 이용해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전국 각지에서 익산을 찾아온 유도 선수들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며 "남은 훈련 기간도 안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군산시, 강소연구개발특구 성과 지표 '톡톡'

'친환경 전기차 배터리 융합산업' 집중 육성

군산시가 5일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강소연구개발특구 성과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번 성과발표회는 강임준 군산시장을 비롯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새만금개발청, 전북특별자치도, 국립군산대학교 등 산학연관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했다.

주요 행사로는 △강소특구 활성화 유공 표창 △우수성과 기업·기관 감사패 수여 △연구소기업 현판 수여 △강소특구 육성사업 1단계 성과발표 △인주기업 협의회 장학금 전달 △글로벌 진출기업 협회 및 계약 △수출기업 홍보 부스 참관 등으로 이뤄졌다.

이날 참석자들은 지난 5년간의 강소특구 육성사업 성과 및 올해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지역 혁신기관과 기업 간

교류·협력을 강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군산시는 2020년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이후 공공기술 발굴부터 기술이전, 창업, 기업 성장에 이르는 기술사업화 전주기 지원체계를 단계적으로 구축해왔다.

그 결과 연구소기업 설립 38개 사, 기술이전 240건, 신규창업 65개 사, 입주 기업 수는 114개 사에서 269개 사로 증가하는 등 모든 성과지표에서 타특구 대비 두드러진 성과를 거두고 있다.

또한 특구 기업들은 차별화된 기술 경쟁력을 기반으로 국내외 무대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창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미래 모빌리티, 첨단 제조, 해양·에너지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야기된 기업 선정, 첨단기술기업 지정, 대기업과의 연계 사업화를 달성했으며, 기술력 검증 등을 넘어 시장성과 성장 가능성이 동시에 입증되고 있다.

아울러 군산 강소특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주관하는 연차 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 특구'로 선정되기도 했다.

올해에는 강소특구 2단계 도약 본격 추진과 함께 '배터리 산업 삼각벨트의 요충지'라는 지역 강점을 바탕으로 친환경 전기차 배터리 융합산업 중심의 기술사업화 생태계를 한층 고도화해 나갈 방침이다.

여기에 △실증 중심 기술사업화 △세계시장 진출 지원 △중·대기업 연계 사업화 확대 △시장 선도형 기술기업 육성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군산 강소특구가 5년간의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2년 연속 최우수 특구로 선정될 수 있었던 것은, 지역 혁신기관과 기업들이 함께 만들어낸 협력의 성과"라며 "기업이 지역에 빠르게 정착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업 입주 공간과 연구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군산시, 120 생활민원 종합상담실 운영

편안한 설 명절 지원

군산시가 다가오는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120 생활민원 종합상담실'을 운영한다.

여기에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도로·교통·수도·하수·청소·보건·환경·식품 등 8개 분야 48여 명으로 구성된 비상 근무반도 특별 편성한다.

시는 종합상담실을 통해 긴급 도로 보수, 불법주정차 차량 지도 단속, 긴급 상·하수도 보수, 쓰레기 처리 등을 실시해 연휴 기간 발생하는 주민 불편 사항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일반전화 120, 핸드폰 063-120으로 민원을 신청하면 종합상담실 근무자가 시민들의 불편 사항을 신속하게 접수 처리하며, 연휴 동안 운영하는 병·의원, 보건소, 약국, 음식점 등 생활 정보도 안내할 예정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고향을 찾은 귀성객과 시민들이 불편함 없이 연휴를 편안하게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군산=지송길 기자



정읍시, 생활 민원 신속 해결...시민 안전 강화

정읍시가 읍·면·동장을 중심으로 한 현장 밀착형 행정을 추진한 결과 시행 3주 만에 150여 건의 생활 민원을 해결하며 시민 안전과 편익을 대폭 강화했다.

시는 지난 1월 셋째 주부터 읍·면·동장이 직접 현장을 점검하는 '현장 중심 생활민원 대응'을 강화해 운영하고 있다. 이는 민원이 접수된 후야 처리하던 기존의 소극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 사정을 가장 잘 아는 행정 책임자가 직접 현장을 돌며 시민의 불편 요소를 먼저 찾아내고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읍·면·동장들은 주요 생활권을 순찰하며 도로 파손, 교통 안전시설 미비, 환경 정비 상태 등을 꼼꼼히 살피고 있다. 점검 과정에서 발견된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조치해 시민 불편을 최

소화하고 예산 투입이나 전문적인 조치가 필요한 사안은 관련 부서에 신속히 전달해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되도록 조율하고 있다.

특히 단순 민원 접수에 그치지 않고 현장 확인을 통한 선제적 조치와 신속한 후속 관리를 병행함으로써, 민원 발생 자체를 줄이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제도 시행 3주 차인 현재(2월 4일 기준)까지 총 150여 건에 달하는 생활 민원이 현장 점검을 통해 발굴·처리됐다. 이학수 시장은 "앞으로도 정기적인 현장 순찰을 통해 시민 불편을 사전에 차단하고 작지만 체감도 높은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익산시, AI·ASF·구제역 유입 차단 '총력'

익산시가 가축전염병 유입 차단을 위해 설 명절에도 24시간 특별방역체계를 가동해 대응에 총력을 기울인다.

시는 설 명절 전국적인 이동 증가로 가축전염병 유입 위험이 커지는 만큼, 연휴 전부터 선제적 차단과 현장 중심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겨울은 전국적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구제역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며, 축산 방역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시는 거점소독시설을 24시간 가동하며 축산 차량 출입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 또한 가금농장과 양돈농가, 우제류 농장을 중심으로 긴급 예

찰을 강화하고, 역학 관련 농가와 시설에 대해서는 이동 제한과 정밀 검사를 병행하는 등 선제적 방역 조치를 시행 중이다.

아울러 사료공장과 축산 관계시설 등 질병 확산 매개시설에 대한 현장 점검도 강화해 차량 소독, 출입 통제, 동선 관리 등 가축전염병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른 차단 방역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시는 설 연휴 기간에도 방역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황실을 상시 운영하고, 농가 전달관제를 통해 이상 징후 발생 시 즉시 신고·대응할 수 있는 초동체계를 유지할 방침이다.

/익산=최준호 기자

정읍시, 동계 아르바이트 참여 대학생과 간담회

정읍시가 5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겨울방학 동안 시정 업무를 체험한 대학생 35명과 간담회를 갖고 청년들의 생생한 현장 경험과 시정 발전을 위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4주간 동계 대학생 아르바이트에 참여해 행정 현장을 경험한 학생들을 격려하고 이들이 근무하며 느낀 솔직한 소감과 시정 운영에 대한 건의사항을 자유롭게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기적의도서관에서 근무한 한 학생은 "대학생 아르바이트에 참여하면서 정읍시의 행정이 매우 세심하고 따뜻하다는 인상을 받았다"

며 "이번 아르바이트는 단순히 용돈을 버는 시간을 넘어서 정읍시의 행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가까이서 볼 수 있는 배움의 장이었다"고 말했다.

학생들의 이야기를 경청한 이학수 시장은 "비록 4주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번 경험이 여러분의 진로를 고민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데 의미 있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정읍시는 우리 지역의 청년들이 다양한 사회 경험을 쌓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청년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겠다"고 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고창군,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최우수'

최하위등급서 4년 만에 최우수 등급... '전북 유일'

전북 고창군이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가(최우수)' 등급을 획득하며 민선 8기 전철하고 신뢰받는 행정서비스가 돋보이고 있다. 특히 민선 7기 말 최하위 수준(2022년 마 등급, 2023년 라 등급)이던 민원평가를 4년만에 최우수로 끌어올린 고창군의 저력에 모두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5일 고창군에 따르면 전날(4일)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25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가' 등급을 획득했다. 이는 전국(243개) 지방정부 중에서 단 25곳만이 선정됐고,

전북특별자치도에서는 고창군이 유일하다.

군은 이번 평가에서 △민원 처리의 신속성과 책임성 △국민신문고 민원의 체계적 관리 △민원 만족도 제고 노력 △취약계층을 배려한 민원서비스 운영 등에서 고르게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고창군 민원만족도 평가는 군민 행복을 최우선한 심덕섭 군정의 핵심으로 꼽히고 있다.

앞서 4년전 고창군 민원만족도는 최하위(2022년 마, 2023년 라 등급)에 머물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심덕섭 군수 취임과 함께 군정슬로건을 '군민 모두가 행복한 활력 넘치는 고창'으로 정하고, "민원서비스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정하면서 분위기는 확 달라졌다.

우선 '민원서류 간소화 전면실시'를

비롯해 군민고충처리위원회 조례 제정, 민원담당 공무원 역량강화교육, 매월 초 전월 처리한 국민신문고 민원에 대한 처리상황을 점검 등 민원 처리과정의 공정성과 신속성을 강화에 노력했다.

또한, 심덕섭 군수도 주말과 휴일에 민원현장을 찾았고, 매년 초 열리는 나눔대학 건의사항이 군정에서 최우선적으로 처리되면서 만족도가 크게 높아졌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이번 성과는 민선 8기 군정 최우선 목표였던 '군민모두의행복'을 위해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인 모두의 성실함 덕분이다"며 "앞으로도 군민 눈높이에 맞는 원스톱 민원서비스와 적극행정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부안군, 부안사랑상품권 추가 충전 시행

설 명절 맞이 추가 운영

부안군은 설 명절을 앞두고 부안사랑상품권 이용 수요가 예상보다 크게 증가함에 따라 오는 9일 추가 충전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군은 명절 수요를 고려해 명절 기간 부안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확대했으나 설 명절을 앞둔 소비 집중으로 발행 예산이 단기간 내 소진됐다.

이에 따라 군은 예산 소진 시 추가 충전이 가능하도록 운영 방식을 조정해 연간 발행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추가 충전되는 부안사랑상품권

의 할인율은 10%, 1인당 월 충전한도는 50만원으로 기존과 동일하며 고창사랑페이 앱과 관내 금융기관을 통해 충전할 수 있다.

군은 이번 추가 충전을 통해 설 명절 기간 중 상품권 이용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군민들의 소비 선택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지역 내 소비 흐름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연희 지역경제과장은 "앞으로도 명절 등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에는 발행 상황을 면밀히 분석해 예산 소진 시 추가 충전 등 탄력적인 운영으로 군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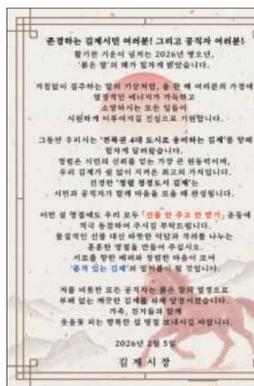
김제시, 설맞이 청렴주의보 제1호 발령

김제시는 설 명절을 맞아 청렴한 조직 문화를 조성하고 '지평선 너머 새만금까지 비상하는 김제'로 나아가기 위해 올해 제1호 '청렴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번 청렴 주의보는 부패 취약 시기인 설 명절을 전후로 5일부터 오는 18일까지 발령되며, 공직사회 전반에 깨끗하고 투명한 청렴 의식을 고취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투명하고 깨끗한 김제를 구현하기 위해 추진된다.

주요 내용은 △선물 안 주고 안 받기' 운동 전개 △'청렴 서한문 게재' 등으로 전 원원이 청탁금지법을 준수해 청렴한 조직 문화 조성에 솔선수범하고자 한다.

시는 올해에도 부패발생 빈도가 높은 부패취약시기에 청렴주의보를 수시로 발령하는 종합적인 운영계획을 수립해 청탁금지법 및 공무원 행동강령 등 주요위반 사례를 안내하고 법령상 공직자로서의 의무 및 준수 사



김제시 청렴주의보 제1호 발령

함을 전파해 시민에게 신뢰받는 청렴 행정운영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청렴주의보 발령을 통해 공직사회가 솔선수범해 청렴 김제 구현에 앞장서겠다"며, "다양한 부패방지 시책을 추진해 깨끗하고 투명한 김제시를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제=은봉기 기자

김제시, 전북 내 인구증가 '1위'

1월 인구 147명 증가 사회적순유입 221명 기록

김제시가 2026년 새해 시작과 함께 새 자릿수 인구 증가를 기록하며, 지난해의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2026년 1월 말 기준 김제시의 주민등록인구는 81,823명으로 전월 대비 147명이 증가했다. 이는 자연감소(74명)를 상쇄하는 활발한 인구 유입의 결과로, 1월 한 달간 총 221명의 사회적순유입이 발생하며 시가 추진해 온 다양한 인구 유입 정책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이번 인구 증가는 영유아(0-6세)가 23명, 청년층(18-39세)이 48명 증가하는 등 미래 세대의 유입이 두드러져 인구 구조의 질적 개선이 함께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이러한 성과는 시가 추진 중인 △전입장려금 △취업청년 정착수당 △청년 부부 주택수당 △결혼축하금 등 정주 인구 유입을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정책'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시는 지난해



김제시가 2026년 새해 시작과 함께 새 자릿수 인구 증가를 기록하며, 지난해의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말, 출산장려금 지원 대상 요건을 '부모 모두'에서 '부 또는 모'로 완화하는 등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체감형 정책을 통해 인구 이탈을 방지하고 유입을 촉진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왔다.

시는 이러한 긍정적인 흐름을 바탕으로 올해 '김제형 일주일 살기'와 같은 체류형 정책을 본격화해 방문객이 정주인

구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확립할 계획이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어려운 대외 여건 속에서도 인구가 계속 늘고 있는 것은 시민과 공직자가 함께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김제에 사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체감도 높은 인구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제=은봉기 기자

부안군, 미생물제 지원사업 간담회 개최

악취저감대책 마련 쾌적한주거환경조성 최선

부안군이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고 실효성 있는 악취 저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본격적인 소포행보에 나섰다.

군은 지난 4일 자동분사시설을 설치·운영 중인 축산농가 및 사업장 46개소를 대상으로 2026년 미생물제 지원사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반영해 자동분사시설의 최적 운영 방안과 미생물제 활용법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또한, 2026년도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돕기 위해 사업비 정산서 작성 요령과 구체적인 추진 절차에 대한 사전 행정 교육을 실시했다. 이와 함께 축산농가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가축 분뇨 및 퇴비의 적정 관리법을 교육하고, 특히 봄철 마부숙 퇴비 살포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주의를 당부하

며 상승적인 민원이 발생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약품을 지원 하는 등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공유했다.

군 관계자는 "악취 저감의 핵심은 농가와 사업장의 자발적인 개선 의지와 실천에 있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 점검과 기술 지원을 병행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부안=신상수 기자

김제시, 청년 안정적 정착 지원한다

청년거주형 스테이크이션 '김제안(인)착!' 사업 추진

김제시는 지역 내 장기간 방치된 빈집을 활용해 관외 청년 가정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는 청년거주형 스테이크이션 '김제안(인)착!'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단순한 주거지원을 넘어, 빈집을 청년의 일상과 미래가 깃드는 공간으로 조성해 청년이 스스로 김제를 삶의 터전으로 선택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정착 유도형 주거 정책이다.

시는 읍·면·동의 현장 행정과 연계해 체계적인 빈집 발굴을 추진하고, 상반기에는 빈집 발굴 및 확보와 리모델링을 하반기에는 입주자 모집을 순차적으로 추진하는 등 단계별 추진을 통해 사업의 완성도를 높여 나갈 방침이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관내 빈집 중 활용 가능한 주택 4동을 선정해, 해당 주택을 5년간 무상 임대, 동당 최대 5천만원 예산으로 리모델링을 진행하고, 리모델링이 완료된 주택은 관외 청년 가정 세대를 대상으로 최대 2년간 무상 제공(소정의 보증금 있음) 계획이다. 청년거주형 스테이크이션 사업에 참여할 빈집소유자는 오는 2월까지 빈집

주소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활용여부에 따라 선정할 예정이며, 이번 사업은 방치된 빈집 문제를 완화하는 동시에 청년 인구 유입과 지역 활력 회복이라는 두 가지 정책 목표를 함께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청년거주형 스테이크이션 '김제안(인)착!'은 잠시 머무는 주거가 아닌, 김제에서의 삶을 직접 경험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된 사업"이라며, "청년과 가족이 김제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김제=은봉기 기자

고창군, 상하수도 사업장 현장 점검

김영식 고창군부군수가 5일 관내 상하수도 사업장을 방문해 시설별 정상가동 여부와 명절 연휴 대비체계, 주요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먼저, 김영식 부군수는 신림면에 위치한 신림가압장을 찾아 고창군 관내 상수도시설 운영 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설 연휴 상수도 공급체계를 면밀히 점검했다.

이어, 고창읍에 위치한 고창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이동해 공공하수처리

시설 내 기계시설 가동 상태와 시설물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올해 준공예정인 고창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김영식 고창군 부군수는 "군민들께서 명절 연휴를 걱정 없이 보내주시실 수 있도록,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과 생활하수의 효율적 처리를 통해 연휴 기간 시설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부안 위도 실내게이트볼장, 본격 운영

부안군은 5일 권익헌 부안군수와 부안군의회의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위도 실내게이트볼장 준공식을 개최하고 사계절 이용 가능한 전천후 생활체육시설로서 본격적인 운영을 알렸다.

이번에 개관한 위도 실내게이트볼장은 총사업비 23억원을 투입해 지상 1층, 연면적 499.29㎡ 규모로 조성됐으며, 게이트볼 경기장을 중심으로 사무실과 화장실, 창고 등 부대시설을 함께 갖춘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부안군은 이번 시설 조성으로 체육 시설이 부족했던 위도의 생활체육 여건이 개선되고 기상 제약 없는 체육활동 환경으로 어르신 건강 증진과 여가 기회 확대, 공동체 활성화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권익헌 군수는 "단순한 운동 공간을 넘어 주민 소통과 화합을 이끄는 활력의 거점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군민 누구나 안전하고 쾌적하게 체육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과 시설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부안군, 3월 3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부안군은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를 대상으로 특별징수명세서를 오는 3월 3일까지 제출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란 2025년 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 이자·배당소득을 지급할 때 법인세 원천징수세액의 10%를 특별징수해 신고·납부한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특별징수명세서는 2026년도에 확정신고·납부하는 2025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의 기납부세액 검증과 자치단체 간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 정산 업무에 활용된다.

특별징수명세서 제출방법은 위택스(지방세 전자신고·납부시스템)를 통해 전자파일에 제출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전자파일 제출에 대한 방법은 위택스 공지사항(2025년 귀속 법인의 이자·배당소득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 공지)을 참고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의 원활한 업무처리와 납세자 편의 제고를 위해 특별징수명세서를 정확히 작성해 기한 내 제출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김제시, 농가대상 겨울철 계약제거 작업·예방 중심방제 지도 강화

김제시가 과수화상병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관내 사과·배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겨울철 계약 제거 작업과 예방 중심방제 지도를 강화하며 선제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과수화상병은 사과와 배 등 장미과 작물에 발생하는 세균성 전염병으로 국가검역 병해충으로 지정된 병해다.

감염 시 치료가 거의 불가능하며, 심할 경우 과수원 전체를 폐원해야 할 정도로 피해가 커 농가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한다. 따라서 무엇보다 사전예방과 철저한 관리가 중요하다.

특히, 병원균은 겨울철 계약 부위에서 살아남아 월동한 뒤 봄철 기온 상승과 함께 주변 나무로 빠르게 확산 될 수 있어, 동절기 계약 제거가 병원균 밀도를 낮추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꼽힌다. 계약 증상이 있는 가지는 계약 하단 끝부터 40~70cm 이상의 아래쪽을 절단하고 소독약을 도포하면 된다. 계약 제거는 과수화상병과 증상이 유사한 배 줄기마름병뿐만 아니라 병해충 방제에도 효과가 있으니 꼭 실시해야 한다.

이승중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겨울철 계약 제거와 의심주 조기 제거만 철저히 해도 과수화상병 발생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다"며 "증상을 발견한 과원에서는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063-540-4538)로 즉시 신고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제=은봉기 기자

고창군보훈회관, 지역보훈단체 견학·정책간담회 등 활용도 '주목'

고창군보훈회관이 지역 보훈단체의 견학과 정책간담회 등을 통해 활용도를 높이고 있다.

5일 고창군에 따르면 지난 3일 전북 서부지역 6개 시·군(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김제시, 부안군) 보훈단체 회원 60여명이 고창군보훈회관을 찾아 선진시설 운영 사례를 공유하고 향후 보훈정책 방향을 모색했다.

전북서부보훈지청이 주관한 이날 설명회에서는 보훈보훈정책 등이 다뤄졌으며, 고창군 보훈회관 개관과정 전반에 대한 질의응답과 국가유공자 추가발굴에 대한 질의사항이 진행됐다.

앞서 고창군보훈회관은 지난해 12월23일 개관 이후 보훈단체의 소통과 복지 증진을 위한 거점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쾌적한 시설과 효율적인 공간 구성으로 타 시·군에서도 벤치마킹 문의가 이어지는 등 모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오수목 고창군 사회복지과장은 "보훈회관 개관을 계기로 보훈단체 간 교류와 협력이 더욱 활성화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실질적인 보훈복지 체계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고창=백종규 기자

순창군, 청년 1인 자영업·농어업 출산급여

1인 소상공인·농어업인 지원 신설 여성 90만원·남성 80만원 현금 지원 출산1년 이내 신청·정착환경 강화

순창군이 올해부터 '청년 1인 소상공인·농어업인 출산급여 지원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출산 후 생계 단절 위기에 놓인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지역 내 출산·양육 친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이다. 특히, 이 사업은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 자영업자와 농어업인을 주요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지원 대상은 현재 순창군에 주소 두고 전북특별자치도에 6개월 이상 거주하면서 도내에서 1인 소상공인으로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만 18세부터 39세 이하의 청년이 해당되며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출산급여(여성)는 본인이 출산한 경우 90만원으로,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수혜자만 지원하며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등 19개 직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제외된다.

출산후가치원금(남성)은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에는 80만 원으로,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의 소득활동 증빙이 필요하며 고용노동부의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수혜자는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출산급여 지원사업은 청년들이 출산과 양육의 부담을 덜고, 자신의 삶의 터전인 순창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제도"라며, "앞으로도 청년이 머무르고 싶고, 돌아오고 싶은 순창을 만들기 위해 실질적인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출산급여 지원사업은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되며,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순창=박지현 기자

남원시, 시민 공감 홍보 강화... '남원시TV' 확대

일방 전달 탈피 체험·공감도 제고 청년 릴레이 참여 지역 매력 소개

남원시가 2026년을 맞아 시민과 함께 만들고, 함께 공감하는 홍보 전략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홍보 전략은 전국 지자체의 '셀프 홍보' 흐름에서 벗어나, 공무원이 직접 나서서 패러디·밈 제작 방식이 아닌 시민이 실제로 체험할 수 있는 생활 중심의 홍보로 전환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시에서 추진 중인 정책, 제도, 사업 등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시민의 일상 속 변화와 경험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내 남원 시민 모두가 자긍심을 갖고 함께 만드는 홍보 플랫폼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남원시는 공식 유튜브 채널 '남원시 TV'를 시민 소통 대표 플랫폼으로 삼아 1분 내외의 영상(숏츠)을 중심으로 짧고 명확한 영상 콘텐츠 제작을 확대할 계획이다. 정책 설명형 콘텐츠와 시민 체험형 콘텐츠를 병행해 정보 전달력과 공감도를 동시에 높일



유튜브 '남원시 TV'의 숏폼 콘텐츠.

<사진=남원시>

방향을 이 살아본 살기 좋은 남원의 모습을 시민과 관광객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해부터 시민과의 즉각적인 소통 홍보를 위해 '원포인트 남원' 코너를 운영하며 주요 시정 정보를 쉽고 간결하게 전달해 왔다. 최근에는 '짧음이가 피어나다' 신규 콘텐츠를 선보여 남원 청년의 삶을 조명하며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남원에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한 '시민 릴레이 소통 콘텐츠'는 현재 축산, 음식점, 카페, 의료원 등 다양한 직군의 청년들이 직접 참여해 자신

이 살아본 살기 좋은 남원의 모습을 시민과 관광객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민생 분야 홍보도 강화한다. 지난 2일부터 시행된 '2026 남원시 민생안정지원금'과 같은 생활 밀착형 정책은 신청 시기, 방법, 지원금 등을 원포인트 영상으로 제작·송출해 시민들이 놓치지 않고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수어 영상도 함께 제작해 정책 수혜 대상 누구나 소의 없이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남원=정하복 기자

순창군, 제2회 '양지천·경천' 사진공모전 개최

개인3인팀최대2점 출품가능 수상작 관광 홍보콘텐츠 활용

순창군이 지역의 대표적인 자연 경관 자원을 전국에 알리기 위해 '양지천·경천에 반하다' 제2회 순창군 양지천 사진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순창읍을 흐르는 양지천과 경천의 사계절 풍경과 감성적인 경관을 주제로, 사진을 통해 순창의 매력을 새롭게 조명하고 향후 관광 홍보 콘텐츠로 활용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 접수는 8월 3일부터 8월 28일 오후 6시까지이며, 순창군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지역·연령 제한 없이 전국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개인 또는 3인 이내의 단체로 참여 가능하고, 1인(팀)당 최대 2점까지 출품할 수 있다.

공모 주제는 '양지천·경천에 반하다'로 수선화·튤립·벚꽃·꽃잔디 등 계절별 경관과 야간경관 등 양지천과 경천의 아름다움을 담은 작품이면 된다.



수상작은 9월 중 순창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할 예정으로 대상 1명(팀), 최우수상 1명(팀), 우수상 및 입선작을 선정하여 표창과 함께 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출품은 순창군청 및 문화관광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전자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순창군청 문화관광과(063-650-1648)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우수 작품은 향후 SNS 및 관광 홍보 자료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며 "전국 사진 애호가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순창=박지현 기자

완주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무주택 임차인 청년·신혼부부 보증료 최대 40만원 지원

완주군이 전세사가 피해를 예방하고,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청년과 신혼부부 등이 납부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최대 40만 원까지 직접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완주군 거주 무주택 임차인 중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자로,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이면서 △연 소득이 청년 5,000만 원 이하, 청년 외 6,000만 원 이하, 신혼

부부 7,500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제출 서류는 △보증료 지원신청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임대차계약서 △통장 사본 등이며, 신청은 완주군청 건축과 주거복지팀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유히태 완주군수는 "전세사기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이번 지원사업을 마련했다"며 "경제적 기반이 약한 청년들과 저소득 가구가 소중한 재산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완주=김명곤 기자

남원건강생활지원센터, 주차 개선·프로그램 확대

야간·주말 개방...생활불편 해소 올해 비만예방교실 등 신규 운영

남원시건강생활지원센터가 이용자 편의성 향상을 위해 주차 환경을 개선하고,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한다.

센터는 최근 이용자 증가로 주차 이용 불편이 발생하자 전용 차단기를 설치하고, 체계적인 주차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주차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특히 업무시간 외 야간과 주말에는 주차장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여 인근 생활권의 주차 불편을 완화하고, 공공시설의 활용도를 높일 방침이다.

2025년 건강생활지원센터는 다양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시니어 디지털교실과 건강트든 운동교

실에는 5개월간 822명이 참여했으며, 슬로우조깅교실과 기공체조교실에는 4개월간 686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력단련실과 어린이건강체험관을 3·4분기에 운영해 총 324명이 이용해 높은 호응과 성과를 거뒀다.

2026년에는 기존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새로운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방학 기간에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신체활동 중심의 '건강속속 운동교실'을 운영하고, 성인 대상으로는 영양교육과 신체활동을 병행한 비만예방교실을 새롭게 추진한다.

센터는 2026년 2월까지 주차시스템 설치와 완료하고, 지속적인 홍보와 프로그램 보안을 통해 시민의 건강생활 실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남원=정하복 기자

순창군, 설 연휴 환경오염 예방 특별점검 진행

상수원·농공단지 하천 순찰 강화

순창군은 설 연휴 기간 중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오는 2월 9일부터 13일까지 특별점검과 단속을 실시한다.

군은 이번 점검을 위해 환경오염행위 예방을 위한 특별점검반 구성하고, 2월 9일부터 설 연휴 전까지 오염물질 배출 우려가 있는 업소와 하천 방류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감시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특히 상수원 수계와 농공단지 주변 등 오염 우려 지역 하천에 대해서는 순찰을 강화해 불법 오염행위를 집중

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아울러 장기간 가동 중단 등으로 환경 관리가 취약한 사업장을 중심으로 가동 여부를 확인하고, 오염물질 처리에 문제가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연휴 이후 정상 가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술 지원도 병행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설 연휴 기간에는 관리·감독이 소홀해질 수 있는 틈을 악용한 불법 오염물질 배출이 우려된다"며 "폐수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에서는 자율 점검을 통해 배출시설과 방지시설 관리에 각별히 신경써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순창=박지현 기자

완주소방서-완주소수터역센터 농아인 소방안전 강화 협약

완주소방서(서장 이주상)는 농아인의 소방 안전 강화와 재난 대응 지원을 위해 완주군수어터역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완주소방서에서 개최됐으며, 완주소방서 대응예방과장을 비롯한 소방공무원 3명과 완주군수어터역센터 센터장 등 2명이 참석해, 농아인 소방 안전을 위한 역할과 협력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농아인 가정의 화재 예방과 재난 대응 역량 강화를 목표로 다양한 협력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주요 협약 내용은 △농아인 가정 소방 안전 지원을 위한 사업 발굴 및 협력 △농아인 대상 119안심콜 및 전북119상담록 등록 지원 △수어 통역사가 참여하는 정기적인 맞춤형 소방안전교육 지원 △보이는 화재감지기, 소화장치 등 기초소방시설 보급 추진 △관내 농아인 대상 소방 활동 시 수어 통역 지원 스키타 상호 협력에 의해 추진하는 사업 등이다.

특히, 이번 협약은 농아인의 의사소통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소방 안전 대책을 마련하고,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전달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완주소방서는 앞으로도 지역 내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군민 모두가 안전한 완주를 만들기 위한 소방 안전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완주=김명곤 기자

남원시, 설 명절 대비 수도시설물 특별 점검

남원시는 설 명절 연휴 기간 중 시민들이 안심하고 수도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달 2일부터 13일까지 관내 수도시설물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명절 기간 수도물 사용량 증가와 한파로 인한 시설물 동파 등 각종 사고 발생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월락정수장 1개소, 배수지 10개소, 가압장 66개소 등 주요 수도시설 전반을 대상으로 추진된다.

점검 내용은 시설물의 정상 가동 여부, 노후·취약 구간 점검, 비상 전원 및 응급 복구 장비 확보 여부, 수질관리 상태 등이다. 발견된 경미한 사항은 즉시 보완 조치하고, 중점 관리가 필요한 시설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또한, 설 연휴 기간 상수도 비상근무 체계를 유지해 누수, 단수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남원=정하복 기자

완주역사복원추진위원회 군의회에 행정통합 의결 촉구

완주역사복원추진위원회(공동대표 나유인, 마완식)가 완주군의회에 완주전주 행정통합 의결을 요청했다.

완주역사복원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5일 완주군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완주군의원들이 전주, 완주지역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의 뜻에 따라 완주 전주 통합을 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안호영 의원의 결단은 무조건 완주-전주 통합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에게 완주지역에 대한 대폭적인 정부 지원을 전제로 한 결단이다. 따라서 완주지역 시민단체들도 정부가 즉각적으로 이에 응답해 줄 것을 촉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추진위는 특히 통합시에도 4년 간 10조원을 지원해줄 것을 요구하며 "이재명 정부는 제2차 공공기관 이전 시 우대 조치, 특례시 지정과 4개 행정구 설치 등에 대한 지원 정책을 발표해 안호영 의원의 결단이 결실을 맺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완주 군민을 설득하고 완주군의회가 원만하게 통합 의결을 할 수 있도록 지원조치들을 서둘러 발표해야 한다"며 통합시 설치법을 신속히 통과해 줄 것을 더불어 민주당과 국회에 요구했다.

끝으로 추진위는 "민주당소속의 완주지역 정치인, 도의원, 군의원들은 더 큰 완주의 미래 발전을 위해 함께 동참해야 한다"며 군의회가 통합이라는 대승적 결단을 내릴 것을 촉구했다. /완주=김명곤 기자

완주사랑상품권 '설 겨냥' 한도 상향...30억 발행

개인 연 구매한도 200→300만원 고향사랑기부·착한업소 캐시백

완주군이 설 명절 소비를 겨냥해 완주사랑상품권 연 구매한도를 300만 원으로 상향하고, 2월 발행 규모를 30억 원으로 확대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추진한다.

군은 이번 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2일부터 완주사랑상품권 개인당 연 구매

한도를 기존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조정했으며, 2월 완주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도 30억 원으로 늘려 명절 소비 수요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군민의 소비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캐시백 프로모션도 함께 운영한다.

고향사랑기부제 참여자에게는 완주사랑상품권으로 결제할 경우 5% 캐시백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2월 9일부터

는 착한가격업소 27개소를 대상으로 완주사랑상품권 결제 시 추가 5% 캐시백 프로모션을 실시한다.

유히태 완주군수는 "설 명절을 맞아 지역에서의 소비가 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완주사랑상품권 지원을 강화했다"며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경제 회복 대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완주=김명곤 기자

완주군 시니어, 마을버스 '승하차 매니저' 활약

30명 배치 교통약자 안전 지원 지역 어르신 자아실현 일자리 확장

완주군이 마을버스에 승하차 매니저 30명을 배치해, 어르신과 교통약자의 안전한 승하차를 돕고 친절 서비스를 강화한다. 군은 마을버스를 단순 이동 수단을 넘어 이웃과 정이 오가는 '행복 이동 서비스'로 확대할 계획이다.

5일 완주군시설관리공단은 승하차 지원 인력을 현장에 투입해 마을버스 이용 과정의 불편을 줄이고, 안전·친절 서비스를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공단과 사회적협동조합 양지대(대표 김정은)이 협약을 통해 추진한다. 양지대는 지역 어르신들이 기존의 단순 노무형 일자리에서 탈피해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자아실현을 돕는 '액티브 시니어'로 역할을 확장할 수 있도록 '승하차 매니저' 운영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공단은 지난 2일 승하차 매니저를 포



완주군시설관리공단은 마을버스에 승하차 매니저 30명을 배치해, 어르신과 교통약자의 안전한 승하차를 돕고 친절 서비스를 강화한다.

<사진=완주군>

합한 어르신 40여 명과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근무수칙 안내와 친절 교육을 진행했다. 아울러 완주군 마을버스에 도입된 초정밀 라이브 버스 정보 시스템(wanju.livebus.ai) 활용을 위한 실무교육도 실시했다.

승하차 매니저는 3일부터 권역별 차고지를 중심으로 배치됐다. 이들은 버스에 탑승해 승객의 안전한 승하차를 돕고 인사를 나누며 버스 내부에 친절

문화를 확산시키는 역할을 맡는다. 또한 이동 중 어르신들이 요청할 경우 초정밀 라이브 버스 정보를 함께 확인하며 이용을 지원한다.

군은 이번 운영이 운전원이 운전전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동시에, 마을버스를 이웃 간의 정이 오가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만들어 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완주=김명곤 기자

무주군, 과수화상병 예방 활동 총력 ... 점검반 운영

무주군이 과수화상병 예방 활동에 나섰다. 무주군에 따르면 현재 '과수화상병 사전 예방 중점 기간(1.12~4.24)을 운영 중이며, 이 기간 주 1회 이상 6개 읍면 사과·배 재배 과원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무주군은 지도·연구직 공무원과 농업인 상담소장 등으로 구성된 6개 팀 28명의 점검반을 편성해 과원을 순회하며 △병해 의심 증상 발생 여부, △예방-위험주 제거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또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예방 제거 방법, △작업자 및 농기 자체 소독 요령, △외부 유입 차단을 위한 과원 관리 수칙 등 과수화상병 예방 교육과 홍보도 병행하고 있다.

한편, 무주군은 과수화상병 의심 증상이 발견될 경우, 즉시 병해충 정밀검사 기관에 진단을 의뢰해 신속한 초동 대응할 계획으로, 안정적인 과수 생산 기반을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무주=최의호 기자



진안군, 한의약 기공체조·중풍 예방교실 참여자 모집

진안군은 군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2026년 한의약 기공체조 교실(모집 2월 23일까지)과 중풍 예방 교실(모집 2월 27일까지) 참여자를 각각 30명씩 총 60명을 모집한다.

기공체조 교실은 몸의 경혈, 경락을 자극하는 동시에 뼈 관절 활성화 및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되며 모집 대상은 40세 이상 군민이다. 3월 3일부터 10월까지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11시 30분 보건소 강당에서 한다.

중풍 예방 교실은 건강한 관절을 위한 관절 통증 원인과 관리법 및 중풍 예방을 위한 건강생활 습관, 건강 관리에 대해 진행하며 모집대상은 60세 이상 군민이다. 수업은 3월 5일부터 10월까지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11시 30분 보건소 강당(2층)에서 운영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안군보건소 건강증진팀(063-430-8563)에 문의 및 참여 신청은 보건소 1층 아토피상담실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진안=전길빈 기자



장수군,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합동 캠페인' 실시

장수군은 겨울방학 기간 중 청소년 보호 강화를 목표로 청소년의 일탈행위를 예방하고 건전한 성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합동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장수군청을 비롯해 장수경찰서, 장수교육지원청 등 3개 기관이 함께 참여해 초중고 주변과 장수읍내 숙박업소와 일반음식점, 복권판매점 등을 대상으로 점검 및 캠페인을 진행했다.

최훈식 군수는 "겨울방학은 청소년이 유해환경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시기이다"며 "숙박업소를 비롯한 사각지대를 살펴 청소년이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수=최진수 기자

임실군, "장보기 걱정 뚝" 내 집앞 마트

'찾아가는 이동장터' 출격

임실군이 생필품을 사는 데 어려움을 겪는 농촌지역 주민들을 위한 '찾아가는 이동장터'를 본격 운영에 돌입했다.

임실군은 지난해 10월 제막식을 통해 첫 선을 보인 '찾아가는 이동장터'의 운영 준비를 마무리하고, 이달부터 본격적인 시범 운영을 시작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 중인 '가가호호 이동장터'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생필품 구매에 어려움을 겪는 농촌 지역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교통 취약지역 주민들의 정주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은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준비 단계부터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직접 유통 경로를 발굴·연결하는 발품 행정을 통해 대형마트 수준의 합리적인 가격을 구현해 가격경쟁력을 갖췄다는 평가다.

특히, 어르신들이 무거운 짐을 들고 시장이 있는 읍내까지 이동하지 않아도 집 앞에서 신선식품과 생필품을 편리하게 구매하고 집집마다 배달서비스



임실군이 생필품을 사는 데 어려움을 겪는 농촌지역 주민들을 위한 찾아가는 이동장터를 본격 운영에 돌입했다.

까지 제공하고 있다.

또한, 운영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수행기관인 임실시니어클럽과 손을 잡아 공익성과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확보했다.

임실시니어클럽은 2월 한 달간 임실읍 41개 마을(이도리, 성가리, 두곡리 제외)을 순회하며 시범 운영을 진행한 다.

이 과정에서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존 '행복용품 9988' 등 시장형 사업 운영경험을 접목해 수익성보다 공익성을 우선하는 농촌형 복지·일자리 연계 모델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번 시범운영은 향후 군 전역으로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한 든든한 기반이 될 전망이다.

/임실=한병일 기자

무주군, 농업용 드론 전문가 양성 과정 운영

2월 9일~20일까지 6명 모집 3월 3일~4월 10일까지 교육

무주군이 농촌 인력난 해소와 지역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업용 드론 전문가 양성 과정(상하반기)'을 운영한다. 올해는 자부담 50만 원(1인당)을 포함해 사업비 총 2천만 원(1인당 교육비 150만 원 지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교육 기간은 오는 3월 3일부터 4월 10일까지(교육 기간은 변동될 수 있음)로, 모의비행 요령 등의 이론교육(농업 기술센터 농업과학관 정보화 교육장), 기본 및 숙달 비행 등의 실기교육(반딧불 드론교육원)이 진행된다.

상반기 농업용 드론 자격증 취득 교육 대상자 모집 기간은 2월 9일부터 20일까지로, 농지 대장 또는 경영체 등록 확인서를 기준으로 3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관내 거주 농업인(교육 대상자 필수 자격 요건, 운전면허 2종 이상을 소지한 농업인(실기시험 응시 필



수 요건)이면 신청할 수 있다. 무주군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 농업기계팀(063-320-2863)으로 방문·접수하면 되며, 교육 대상 인원은 총 6명이다. 모집 인원이 초과할 경우는 교육생 선정 기준표(배점 기준 등)에 따라 선정해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한편, 무주군은 '농업용 드론 전문가 양성 과정' 운영 외에도 저속 농업기계 표시등인 등화 장치 부착 사업(사업량: 85대)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경운기와 트랙터 등 농업기계에 등화 장치 부착을 지원해 안전사고를 막는 데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총 75대를 지원했다.

/무주=최의호 기자

대한노인회 장수군지회, 노인 지도자 역량 강화 교육

경로당 운영 역량 강화

(사)대한노인회 장수군지회는 지난 5일 한누리전당 소공연장에서 '2026년 노인지도자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이정우 장수부군수를 비롯한 허기태 대한노인회 장수군 지회장 및 경로당 회장과 총무, 지회 임원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로당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투명한 회계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실무 중심으로 이뤄졌다.

특히 경로당에서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고 경로

당의 투명한 회계관리 운영으로 회원들 간의 신뢰와 조적력, 경로당 운영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뒀다.

이에 경로당 회계 처리 절차와 운영 규정, 보조금 집행 시 유의사항 등 지도자들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했으며 실제 사례를 활용한 실명을 통해 이해도를 높였다.

노인지도자들은 "경로당 운영 관리와 관련 규정의 어렵게 느꼈던 부분들을 눈높이에 맞춘 설명으로 이해하기 쉽게 배울 수 있어 매우 만족스러웠다"며 "이번 교육이 경로당 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허기태 지회장은 "노인회의 핵심 지도자로서 자부심을 갖고 새로운 변화에 앞장서길 바란다"며 "앞으로 회원들이 서로 화합하고 활성화해 경로당 조직이 강화되고 지역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경로당으로 발전시키자"고 강조했다.

이정우 부군수는 "이번 교육이 노인 지도자의 리더십을 한층 강화하고 경로당 운영의 내실을 다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해 지속적인 역할을 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장수=최진수 기자

임실군, 반려동물 여행사 펫츠고트래블과 협약 체결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 추진

임실군은 지난 3일 반려동물 동반 전문 여행사 '펫츠고트래블'과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반려동물 동반여행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임실군이 보유한 반려동물 관광자원과 전문 여행사의 기획·운영 역량을 결합해 차별화된 반려동물 관광 콘텐츠를 발굴하고 지역 관

광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임실군 특화 반려동물 동반 관광상품 운영 △공동 홍보·마케팅 △주요 축제와 연계한 반려동물 콘텐츠 기획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할 계획이다.

펫츠고트래블은 반려동물 동반 전문 여행사로, 다양한 반려동물 특화 여행 상품을 다수 개발·운영해 왔다. 특히 여행 전반에 걸쳐 반려동물 안전과 편의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전

문 가이드 '펫가이드' 운영 체계를 구축하고 있어, 보다 안전하고 체계적인 반려동물 동반 관광상품 운영이 기대된다.

앞서 펫츠고트래블은 지난해 임실군과 함께 총 3회에 걸쳐 반려동물 동반여행 '임실 펫투어'를 운영한 바 있으며, 현장 중심의 안정적인 운영과 편안한 케어 서비스 제공으로 투여에 참여한 반려인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임실=한병일 기자

진안군, 스냅촬영 지원사업 운영

건당 10만원 지원금 지급

진안군이 '2026-2027 진안 방문의 해'를 맞아 진안의 아름다운 관광 자원을 널리 알리고 관광객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사하기 위해 '2026 진안고원 스냅촬영 지원사업'을 시범운영 한다.

이번 사업은 진안군을 방문하는 관광객과 군민을 대상으로 진안군 내 주요 관광지에서 전문 작가와 함께 진행한 스냅촬영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만 19세 이상이면 주소지 제한 없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진안군 관광지 일원에서 인물 스냅 촬영을 진행할 경우 건당

1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올해 지원 규모는 총 60건이다.

품질 확보와 투명한 운영을 위해 사진, 영상, 미디어, 콘텐츠 등 관련 업종으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전문 사진작가를 대상자가 직접 섭외해 촬영을 진행 후 관련 증빙을 제출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대상자는 촬영 후 전체 공개로 설정된 본인의 소셜미디어(블로그, 인스타그램 등)에 필수 해시태그(#진안여행, #진안스냅, #촬영장소명)와 함께 결과물을 3장 이상 게시해야 한다.

단, 촬영 예정일 7일 전까지 사전 신청을 해야만 지원이 가능하다. /진안=전길빈 기자

무주군의회, 제322회 임시회 폐회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새만금이전 촉구 건의 채택

무주군의회가 5일 제322회 임시회를 폐회하고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 청취 등 안건 심사를 완료했다.

무주군의회는 지난달 27일부터 10일간 진행된 이번 임시회에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 조례안 및 공유재산 계획안 등 안건을 심사했다. 그리고 최윤선 산업건설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새만금 이전 촉구 건의문'을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최윤선 위원장은 건의문을 통해 "반도체 생산 거점의 안정적 확보와 이를 뒷받침하는 국가차원의 전력·송전 인프라 구축은 중대한 국가 과제"라고 말했다.

반도체 생산시설의 임지 선정에서 안정적 전력 공급과 송전망 확장성이 필수라는 최윤선 위원장은 장거리 송전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환경파괴를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발전과 소비를 동일지역에서 해결하는 '지산지소(地産地消)'형 전력 공급 체계로의 전환을 제안했다. 그리고 반도체 클러스터와 전력 생산·소비시설을 연계 구축할 수 있는 최적의 입지가 새만금이

라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새만금으로 이전할 것을 촉구했다.

최윤선 위원장은 또한 무주군을 비롯한 전북 지역이 국가 전략산업 배치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왔고 발전 설비와 송전 인프라 부담을 감내하면서도 산업 유치와 고용창출 혜택에서 배제되어 온 만큼 "특정 지역의 희생은 전제로 한 송전망 구축을 멈추고 산업 입지정책과 전력정책을 연계한 근본적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취지에 공감한 무주군의회는 △국가 핵심산업 구조 개선과 지역 균형발전 실현을 위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새만금 이전을 정부차원에서 추진할 것 △지산지소형 전력공급 체계를 기본 원칙으로 국가 송전망 구축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불필요한 신규 송전선로 건설을 백지화 할 것을 촉구하며 정부에 공식 요구하기로 했다.

오광석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이번 회기에서 제시된 의견과 지적사항을 후속조치에 반영할 것을 집행부에 당부하고 "이번 회기를 통해 다진 논의와 결정을 바탕으로 군민의 삶에 작은 변화와 희망의 기운이 스며들 수 있도록 역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무주=최의호 기자

장수군, 사과 재배 신기술 보급 추진

장수군은 최근 빈발하는 이상기상과 고령화 시대 농촌 노동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사과 재배 신기술 보급과 현장 맞춤형 기술지도를 통해 농가 소득 향상에 힘을 쓰고 있다.

장수군은 5일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제 영농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고 지역 기후와 환경에 적합한 재배기술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군은 사과시험장을 중심으로 자율주행 농기계, 고온·재해 대응 시설과 노동력 절감형 재배기술을 실증하고 이를 농가에 현장 보급하기 위한 연구와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올해에는 약 1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이상고온 대응 미세살수·차광 시설 △노동력 절감을 위한 수형 개선 및 다축 재배기술 △스마트 방제 기술 △과원 관리 기계화·자동화 기술 보급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단순한 기술 보급에 그치지 않고 사과시험장을 활용한 현장 중심 컨설팅과 교육을 병행해 농업인이 실제 재배 현장에서 신기술을 단계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고품질 사과 생산 기반을 강화하고 농가의 작업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장수=최진수 기자

임실군, 고품격 고추 육묘 지원사업 추진

임실군이 원예특작 작목인 고추 재배 농가의 경쟁력 강화와 생산 안정화를 위해 '고품질 고추 육묘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군은 고추 재배 농가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고품질 작물 생산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군 자체사업으로 고품격 고추 육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에는 7억5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고추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공동육묘와 종자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공동육묘 지원을 통해 균일하

고 건강한 고추 묘를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재배 초기 생육 안정과 품질 향상을 도모하고, 종자대 지원을 통해 농가의 경영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할 방침이다.

군은 이번 사업이 농가의 생산 의욕을 높이는 것은 물론, 지속가능한 농업의 기반 조성하고 함께 지역 농업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고품질 고추 생산을 통한 농가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임실=한병일 기자



**티앤제이건설, 완주군에
지역사랑상품권 1,000만원 전달**

대한적십자사 전북특별자치도지사(회장 김홍식)는 5일 티앤제이건설주식회사(회장 고태유, 사장 김지혜)가 완주군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1,000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달식은 티앤제이건설(주)이 2023년 가입한 레드크로스 아너스클럽(RCHO)을 통해 이뤄졌으며 상품권은 완주군을 통해 저소득 100여 가구에 순차적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레드크로스 아너스클럽(RCHO)은 적십자사 고액기부자 모임으로, 전북 지역에는 현재 1호부터 20호까지 회원이 가입 중이며 티앤제이건설주식회사는 전북 20호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고태유 티앤제이건설주식회사 회장은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완주군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부를 이어가고 있다”며 “이번 기부가 설 명절을 앞둔 이웃들에게 보탬이 돼 보다 따뜻한 명절을 보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혜민 기자



**김종표 운봉읍장,
운봉향교 고유제 봉행**

운봉향교는 지난 2일 대성전에서 향교 임원, 유림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종표 운봉읍장 취임을 알리는 고유제를 봉행했다.

고유제란 중대한 일을 치르고자 할 때나 치른 뒤 그 내용을 사당이나 신령에게 알리는 제사를 말한다. 예로부터 새로 취임한 고을의 수령은 향교에 가서 공자를 비롯한 성현들에게 선정을 다짐하는 의미로 고유제를 봉행했다.

이날 고유제는 김종표 읍장의 헌향과 축문 낭독, 제례의 순으로 진행됐다. 서영복 전교는 “성현께 김종표 운봉읍장의 취임을 알리고, 앞으로 운봉읍의 번영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고유제를 봉행했다”고 전했다.

김종표 운봉읍장은 고유제 봉행 후 “성현들의 가르침을 가슴에 새기며, 운봉읍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남원=정하복 기자

NH농협 임실군지부, 고향사랑기부금 3,900만원 기탁

“지역사회 발전 위한 역할과 책임 다하겠다”

임실군은 지난 4일 NH농협 임실군지부가 고향사랑기부금 3,90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탁식에는 심민 군수와 이재문 지부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재문 NH농협 임실군지부장은 “앞으로도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심민 군수는 “NH농협 임실군지부 직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답례품의 품질 향상을 통해 기부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소중한 기부금은 군민 복리증진과 현안사업 등 지역 발전을 위해 뜻 깊게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임실=한병열 기자

이재문 지부장은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임실군에 힘을 보탬 수 있어서 매우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임실군은 지난 4일 NH농협 임실군지부가 고향사랑기부금 3,90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고창군 상하면청년회, 이웃돕기성금 100만원 기탁

청년회 회원들 뜻 모아 마련

고창군 상하면청년회(회장 황순태)가 지난 4일 상하면 주민행복센터를 찾아 이웃사랑 성금 100만원을 기탁하며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이번 성금은 상하면 청년회 회원들이 뜻을 모아 마련한 것으로, 기탁된 성금은 관내 취약계층 및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위해 소중히 사용될 예정이다.

상하면 청년회는 평소 지역의 크

고 작은 각종 행사와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하며 솔선수범하는 단체로, 지역사회 발전과 화합을 이끄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황순태 상하면 청년회장은 “앞으로도 이웃과 함께하는 청년회로서 지역 발전과 나눔 실천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박광열 상하면장은 “이러한 따뜻한 참여가 상하면을 더욱 단단한 공동체로 만들어 가는 큰 힘이 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김재=은봉기 기자



임실군 애향장학회, 주민들의 꾸준한 장학금 기탁

임실군 애향장학회(이사장 심민)에 연초부터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따뜻한 나눔이 잇따르며 훈훈한 감동을 전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임실군 애향장학회(이사장 심민) 장학금 기탁식에서는 임실읍 두만마을 김성권·이난희 부부가 1백만원, 김영수 임실읍 상원마을 이장이 1백만원을 각각 기탁하며, 지역사회와 미래세대를 향한 깊은 애정을 다시 한 번 보여주었다.

특히, 김성권·이난희 부부는 2016년부터 올해까지 무려 11년째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장학금 기탁을 이어오고 있는 대표적인 ‘지속 나눔’ 실천자로, 누적 기탁액은 총 1천 1백만원에 달한다.

김영수 이장은 2024년부터 장학금 기탁을 시작해 올해로 세 번째 기탁을 이어가며, 지역의 리더로서 미래세대를 향한 책임있는 행보를 꾸준히 실천하고 있다.

/임실=한병열 기자



KTS청운태권도, 완주군에 라면 1000개 전달

KTS청운태권도가 완주군정신건강복지센터(센터장 강남인, 마음사랑병원 진료과장)에 지난 4일 기부받은 라면 1,000개를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KTS청운태권도 어린이 관원 20명과 김현준 관장, 완주군정신건강복지센터 강남인 센터장을 비롯한 직원들이 참석했다.

이번 후원은 어린이 관원들이 자발적으로 마음을 모아 준비한

물품이라는 점에서 지역사회에 따뜻한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KTS청운태권도는 평소 나눔과 배려의 가치를 교육하며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2023년 6월 사회공헌 협약을 체결한 이후 정신과적 어려움이 있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신체 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라면 기부 등 지원 활동을 함께해왔다.

/완주=김명근 기자



김제시 금구면지사협, 떡국 나눔 행사로 온기나눔 실천

김제시 금구면 행정복지센터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간위원장 최수연, 이하 협의체)가 5일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관내 지역주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온기나눔 실천의 일환으로 ‘제8회 떡국 나눔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지역사회 주민들의 자발적인 후원으로 진행됐으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뿐만 아니라,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자율방범대원들이 대거 참여했다.

최수연 금구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주민들이 정성으로 모아주신 후원 물품으로 이웃들에게 따뜻한 한 끼를 대접할 수 있어 기쁘다”며 “따뜻한 그릇에 담긴 이웃의 사랑이 추운 겨울을 녹이는 힘이 되길 바라고, 앞으로도 사각지대 없는 금구면을 만들기 위해 발로 뛰겠다”고 전했다.

/김제=은봉기 기자



**전북은행, 정읍시에
고향사랑 기부금 1,650만원 기탁**

전북은행이 5일 정읍시청을 찾아 지역 경제 활성화와 기부 문화 확산을 위해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고향사랑기부금 1650만원을 기탁했다.

이날 기탁식에는 이학수 시장과 최정구 전북은행 부행장, 김태석 정읍지점장 등 양측 관계자 6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전북은행은 지난해 1500만원을 기탁한 데 이어, 올해도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모은 성금을 전달하며 지역사회와 따뜻한 동행을 이어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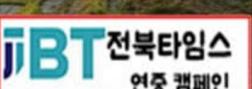
최정구 부행장은 “병오년 새해를 맞아 직원들과 한마음 한뜻으로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하게 됐다”며 “임직원 모두의 정성이 담긴 이번 기부금이 정읍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 쓰이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학수 시장은 “전북은행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보내주시 소중한 기부금은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복리를 증진하는 기금 사업에 투명하고 책임감 있게 활용하겠다”고 화답했다.

/정읍=김정민 기자



전북의미래, 자연에서 시작합니다.



〈一事一言〉



세상이 다 아는데 '증거 없음'... 김건희 봐주기 판결(2)

송요훈
민들레 편집위원

대선에서 0.73%의 미세한 차이로 대통령에 당선되었고,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었는데 김건희는 '셀럽' 흉내를 내며 영부인으로 호사를 누렸고 여가생활이 명품 백도 받고 다이어 목걸이도 받고 고급 시계도 받고 금겨북이도 받고 역대급 그림도 받았다. 명태군의 여론조사가 윤석열 당선에 얼마나 기여했을까? 계량하여 산출할 수 없으니 판결에 반영하면 아니 되는가?

윤석열은 대통령 당선 다음 날 명태군과 통화했고, 명태군에게 김영선 공천을 약속했다. 김건희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온 국민이 안다. 약간의 과장을 하자면, 누구네 집에 술잔이 몇 개인지 아는 정도로 훤히 안다. 그런데 주가조작 혐의도 여론조사 관련 혐의도 무죄란다.

그 판결에 공감하는 국민이 몇이나 될까. 인터넷 세상에서 돌풍이 일어나고 재판의 권위, 법원의 신뢰가 와르르 무너진다.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이 집단으로 복귀 요구를 했다는 게 생각난다. 수사가 아니라 태업을 했구나, 무죄 판결이 나오도록 수사를 했구나 하는 의심마저 든다. 그러면서 보완수사권을 달라고?

범죄가 100% 입증되지 않을 때는 피고의 이익으로, 맞힌 말이다. 왕과 귀족이 법 따위를 우습게 알던 시절에 힘없는 평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한 형사소송의 대원칙이 아닐까?

그런데 독재 권력이 법 위에 있던 시절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다

체포되어 고문을 당하고 없는 죄를 뒤집어써야 했던 이들에겐 그 법언이 왜 적용되지 않았는가. 정치적 표적을 물고 뜯는 검언 합작의 마녀사냥이 유행할 때는 왜 그 금과옥조 같은 대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는가.

증거가 없다고 한다. 솔로몬왕은 아이의 소유권을 놓고 다투는 두 여인에게 아이를 돌로 갈라 반씩 가지라 했다. 증거가 없어서 그랬을 것인데, 그러자 진짜 엄마가 나타났다. 오늘날의 판관에게 왜 그런 지혜가 없는가.

사유와 번민이 없는 판결, 법원 밖의 세상과는 단절된 판결, 법조문에 끼워 맞추는 기계적 판결은 좋은 머리로 요리조리 범망을 피해가고 빠져나가는 법 기술자와 법꾸라지를 양산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AI가 무서운 건 스스로 학습하기 때문이다. 바둑의 정석이 뭔지도 모르던 알파고와 학습에 학습을 거듭하던 바둑 천재 이세돌을 이겼다. AI에게 판결을 맡기면, 학습에 학습을 거듭하여 지혜로운 솔로몬 왕도 감탄할 판결을 내놓을 것 같다.

우인성 재판장은 김건희에게 형량을 선고하기에 앞서 대통령 배우자인 영부인은 법령상 권한이 부여된 공직자는 아니지만, 대통령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대통령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대통령과 함께 나라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존재이므로 그에 걸맞은 처신이 필요하고, 기본적으로 높은 청렴성과 엄격성이 요구

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고 했다. 맞는 말이다.

또한, 국가와 사회가 발전하기 위한 토대 중 가장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가 공정이고, 모든 일은 불편부당하고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어야 한다는 믿음은 사회를 올바른 방향으로 움직이게 하는데, 이러한 공정을 해하는 것이 부패이고, 부패는 금전적 청탁과 필연적으로 결부되며, 영리 추구는 거대한 인간의 본성이긴 하나 지위가 영리 추구의 수단이 되어서는 아니 되고, 권력에 대한 금권의 접근은 다반사일 수 있으므로 지위가 높을수록 이를 의식적으로 경계해야 한다고 했다.

그럼에도 피고인 김건희는 자신의 지위를 영리 추구의 수단으로 오용하였고 청탁과 결부되어 공여된 고가의 사치품을 뿌리치지 못하고 수수한 다음 이를 가지고 자신을 치장하는 데 급급하였다며 검소하되 누추하지 않고 화려하되 사치스럽지 않다는 겸이불루 화이불치(儉而不陋 華而不侈)라는 고사성을 인용하여 굳이 비싼 재물을 두르지 않더라도 검소하게 품위를 유지할 수 있다며 김건희를 엄하게 꾸짖었다.

그런데 형량은 고작 1년 8월이란다. 주가조작은 주식시장을 교란하는 불공정 행위이고, 여론조사 조작은 선거의 민주적 기능을 방해하는 불공정 행위인데, 국가와 사회가 발전하기 위한 토대 중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공정이라면서, 김건희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온 국민이 아니어도 무

죄 판결을 내린다. 매를 드는 것 같더니 사탕을 주는 꼴이다.

법의 적용에는 권력을 가진 자 이든 권력을 잃은 자이든 예외나 차별이 없어야 한다. 그 말은 살아있는 권력이 죽은 권력에 게 정치 보복을 할 때 적용해야 한다. 김건희 수사와 재판이 정치 보복인가?

겸이불루 화이불치(儉而不陋 華而不侈)라는 어려운 고사성어는 이데 쇠귀에 경 읽기라는 쉬운 속담은 모르는 게 아닐까. 세상과 단절된 채 자기 세계에 갇혀 있는 건 아닐까. 세상의 모든 걸 법조문에 끼워 맞추는 기계적 판결을 공정한 판결로 착각하는 건 아닐까. 우리 법원에선 왜 이리도 솔로몬을 만나기 어려우나... 별별 생각이 스친다.

기업을 경영하는 CEO들에게 역사, 철학 등 인문학적 소양이 필수라는 말이 유행한 적이 있었다. 그 말을 판사들에게 해줘야 할 것 같다.

윤석열의 12.3 계엄은 내란이고 친위 쿠데타이며, 위로부터의 내란이 '아래로부터의 내란'보다 위험하다는 판결은 단지 법조문에서 나온 건 아닐 것이다. 우리나라의 법조인 양성에 커다란 구멍이 뚫려 있는 것 같다.〈끝〉

본 칼럼은 시민인론 민들레에 게재된 내용임을 밝힙니다.
외부원고 및 기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특별기고 |

국보도 길을 나서는 시대, '진묘수'의 고향 장수를 제안한다



공주 무령왕릉을 지키던 상상의 동물, 진묘수(鎭墓獸). 어둠 속에서 왕의 길을 수호하고, 떠나는 이의 영혼을 인도한다는 믿음으로 조각된 이 돌질승은 오늘날 국립공주박물관의 상징이자 마스코트로 살아 있다. 그러나 진묘수에게는 아직 완결되지 않은 이야기가 하나 남아 있다. 바로 "어디에서 왔는가"라는 출발지의 문제다.

무령왕릉 발굴 50주년을 정리한 최근의 학술 보고에 따르면, 진묘수(석수)와 지석의 재질은 모두 각섬석암이며, 이 암석은 공주 일대에서는 산지가 거의 확인되지 않는 반면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일대에서 다량 산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보고서는 공주에서 100km 이상 떨어진 장수 또는 인근 지역에서 돌을 조달해 제작했을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제기한다.

이 대목은 단순한 산지 추정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국보급 문화유산의 서사 속에 전북 장수가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순간이기 때문이다. 진묘수는 더 이상 공주만의 상징이 아니라, 제작과 이동, 교류의 경로를 통해 장수와 연결되는 유산이 될 가능성을 품게 된다.

여기에 고대 기록이 던지는 한 줄의 문장도 흥미롭다. 『일본서기』에는 반과국(倭國)이 '진기(眞記) 한 보물(珍寶)'을 바치며 기문(己汶)의 땅을 요구했다는 기록이 등장한다. 이 시기는 무령왕이 남하 정책을 펼치며 전북 남부 지역으로 세력을 확장하던 때와 맞물린다. 곧바로 그 진보가 진묘수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장수가 '석재의 고향'으로 거론되는 상황에서 '진보'라는 단어가 남기는 여운은 결코 가볍지 않다. 장수는 이제 막연한 상상의 공간이 아니라, 과학적 분석과 기록이 함께 건드리기 시작한 역사적 출발선에서 있다.

이 지점에서 하나의 현실적인 질문이 떠오른다. "그렇다면 장수에서 진묘수를 직접 만날 수는 없을까?"

그동안 국보는 움직이지 않는다는 인식이 강했다. 그러나 시대는 달라지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립중앙박물관과 소속 국립박물관, 지자체가 협력해 국보급 문화유산을 지역 공립박물관에서 소개하는 '국보 순회 전시'를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이는 보존을 이유로 멈춰 세우기보다, 적극 행정을 통해 문화유산의 공공성과 접근성을 확장하려는 정책적 전환으로 읽힌다.

핵심은 분명하다. 좋은 문화유산은 수도권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며, 지역에서도 동등하게 향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장수역사 전시관 특별전 <진묘수의 고향 나들이>는 충분히 검토해볼 만한 제안이다. 국립공주박물관과 장수군이 협력해 '실현 가능한 방식의 문화 교류'를 시도해보자는 것이다.

보존과 안전 기준이 충족된다면 실물 전시를 1순위로 검토할 수 있고, 여건이 허락하지 않는다면 고정밀 복제품, 3D 스캔, 영상, AR 등으로 '가장 진짜에 가까운 전시'를 구성할 수 있다. 핵심은 무조건 옮기자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최선의 방식으로 만남을 성사시키는 데 있다.

전시가 대중의 관심을 얻기 위해 메시지는 단순해야 한다. 관람객이 전시장을 나서며 기억해야 할 것은 세 가지면 충분하다.

첫째, 진묘수는 무령왕릉을 지키던 수문장이다. 둘째, 그 몸통의 돌이 장수와 연결될 가능성이 커졌다. 셋째, 『일본서기』의 '진보(珍寶)' 기록이 상상력을 더한다.

이렇게 정리되는 순간, 전시는 하나의 역사 추리극이 된다. 아이들도 이해할 수 있고, 어른들도 질문을 품게 된다. '국보의 고향'을 찾아가는 이야기는 그 자체로 강력한 콘텐츠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할 과제도 있다. 진묘수 머리 위에

얹힌 나뭇가지 형태의 철제 빨이 다. "그 철은 어디에서 왔을까. 장수의 제철 유적과 연결될 가능성은 없을까?" 앞으로 필요한 것은 추정이 아니라 과학적 검증이다. 철 성분 분석과 제작 흔적 조사, 장수 지역 제련 부산물과의 비교 연구가 이뤄진다면, 장수는 '돌의 고향'을 넘어 백제와 연결되는 '기술의 현장'으로까지 확장될 이야기기를 품을 수 있다. 연관성이 약하더라도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이 상상인지를 구분하는 과정 자체가 서사를 단단하게 만든다.

전시의 깊이를 더할 소재도 있다. 완주 상동에서 확인된 청동 칼 거꾸집과 녹반석 벼루 역시 각섬석암·금돌 계열 석재로 알려져 있다. 이는 장수 일대를 산지로 한 돌이 왕릉 조형물뿐 아니라 제작 기술과 문방 문화, 생활과 지식의 기반까지 떠받쳤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 연결이 전시에 담기다면 <진묘수의 고향 나들이>는 한 점의 국보를 넘어 전북권 석재 문화와 기술 네트워크를 조망하는 특별전으로 확장될 수 있다.

국보도 길을 나서는 시대. 공주의 수호신 진묘수가 장수에 한 번 걸여오는 순간, 장수의 질문은 전북의 자선이 되고, 나아가 지방 문화 교류의 하나의 모범 사례로 남을 수 있다. 이 가능성을 진지하게 상상해볼 때다.

/최훈식 장수군수

사설

기린대로 BRT 무재해 선언, 안전이 완성도 결정

전주 기린대로 BRT 구축 사업이 '무재해 시공'을 선언하며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

전주시는 지난 4일 안전결의대회를 열고 오는 11월 개통을 목표로 안전과 품질을 최우선에 둔 시공을 다짐했다. 도시의 대동맥인 기린대로에서 진행되는 대규모 공공 공사인 만큼 이번 선언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시민의 생명과 일상을 지키겠다는 엄중한 약속이 있어야 한다.

기린대로 BRT 사업은 전주시 교통체계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핵심 사업이다. 승용차 중심에서 대중교통 중심으로 이동 축을 전환하고, 교통 혼잡과 탄소 배출을 동시에 줄이겠다는 도시 전략의 상징이기도 하다.

그만큼 공사의 규모와 난이도도 크다. 지하 매설물과 가공 전주 이설, 보도 후퇴, 중앙차로 조성까지 복합적인 공정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안전사고 위험은 상존한다. 이런 현실 속에서 '단 한 건의 재해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선언은 반드시 지켜져야 할 최소한의 원칙이다.

결의대회에서 강조된 추락·충돌·질식 등 3대 악성 사고 근절과 권한과 책임이 있는 안전 관리, 노·사·민·정 협력에 기반한 안전 문화 실현은 형식적 문구로 끝나서는 안 된다. 현장에서는 일정 압박이나 공정 효율보다 안전이 우선된다는 인식이 실제 행동으로 이어져야 한다. 안전관리자가 말리고 점검하는 수준을 넘어, 모든 작업자가 위험을 발견하면 공정을 멈출 수 있는 권한과 분위기가 정착될 때 비로소 '무재해'는 현실이 된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시민의 이해와

협조다. 기린대로는 하루에도 수많은 시민이 오가는 생활 도로다. 공사로 인한 불편은 불가피하지만, 불편이 곧 불안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전주시가 예고한 SNS, 누리집, QR코드 등을 통한 공정 정보 공개와 교통 대책 안내는 시민 신뢰를 높이는 핵심 장치다. 공사 구간과 일정, 우회로와 대중교통 변화가 투명하게 공유될수록 시민의 불편은 줄고, 현장의 안전 역시 강화된다.

특히 공정이 본격화되는 3월 이후는 사고 위험이 가장 높아지는 시기다. 인력과 장비가 대거 투입될수록 현장 통제와 안전 점검은 배가되어야 한다. '기린 내 준공'이라는 목표가 '무리한 속도전'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시공사와 발주처 모두 냉정한 관리 책임을 져야 한다. 준공이 하루 늦어지는 것보다, 안전 사고로 시민과 노동자가 다치는 일이 훨씬 더 큰 손실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기린대로는 전주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잇는 상징적인 공간이다. 이 길 위에 들어설 BRT는 단순한 교통시설이 아니라 전주의 도시 철학을 보여주는 결과물이다. 안전을 희생하지 않는 시공,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행정, 완공 이후 실제로 체감되는 이동 편의가 함께 어우러질 때 전주형 BRT는 성공한다.

이번 '무재해 시공' 선언이 선언으로만 남지 않기를 바란다. 단 한 건의 사고도 없이, 약속한 시기에,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BRT가 완성될 때, 전주는 대중교통 중심 도시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다. 안전을 기본값으로 삼은 건설상 시공이야말로 시민의 신뢰에 보답하는 유일한 길이다.

오늘의시

문이 열리고 / 나 희덕

한 개의 문이 열려
머칠째 눈발이 천지를 메우더니
천 개의 문이 닫히고
발들은 모두 묶이고 말았네
마른 풀대도
시린 발목을 눈에 묻고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하네
소리들도 갇혔네
어디선가 희미하게 들리는 소리,
가장자리는 열어가지만
흐르는 물만이 문을 닫지 않아
나는 물소리 앞에 쪼그려 앉았네
천 개의 문이 닫히고
당신에게로 흐르는 수문만이 남았네
눈송이를 낚으려 하나
물에 닿는 순간 사라져버리네
젖은 눈 속에 젖은 눈,
그 열린 문으로 나도 따라 들어가네

시인 약력 : 1966년 충남 논산 출생. 연세대 국문학과와 동 대학원 박사과정을 졸업했다. 1989년 중앙일보 신춘문예에 시 '뿌리에게'가 당선되어 등단했다. 시집으로 '뿌리에게' '그 말이 잎을 물들었다' '파일명 서정시' 등이 있고 산문집으로 '반 통의 물' '저 불빛들을 기억해' 시론집으로 '보랏빛은 어디에서 오는가' 등이 있다. 김수영문학상과 미당문학상, 백석문학상 등을 수상했다. 서울과학기술대 문장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JBT 전북타임스 Jeonbuk Times 2026년 10월 01일 화 / 등록번호 전북 가-00022(발간) 우)54990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77(진북동)5층 www.jeonbuktimes.co.kr

발행, 편집인 송민순	편집국장 장정철	인쇄인 김은주
대표전화 282-9601	업무국 팩스 282-9604	편집국 팩스 283-8800
전주시 010-9845-4113	군산지국 010-8641-7942	무주지국 010-6411-0835
부안지국 010-7247-3947	익산시 010-9678-4271	남원지국 010-2285-3987
임실지국 010-8642-6502	고창지국 010-2258-3734	인무지국 010-8640-6855
익산지국 010-9560-3075	전안지국 010-2433-1721	완주지국 010-3672-0308
발백지국 010-3015-4791	김제지국 010-4572-6112	장수지국 010-8826-8049
송전지국 010-5242-3694	정읍지국 010-2800-2934	순창지국 010-5312-7293

·구독료 : 월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 윤리 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시민의 기억이 역사가 되는 '기록도시 익산'



일제강점기인 1930년에 건립된 옛 익옥수 리조합 건물은 오랜 시간 제 기능을 잃은 채 남아 있었다. 이 건물이 시민의 기억을 담는 공간으로 다시 문을 연 것은 2024년 12월 23일, 익산시민역사기록관의 개관이였다.

개관 이후 이곳에는 익산 시민들의 삶과 기억이 차곡차곡 쌓였다. 익산의 기록은 과거에 머물지 않는다. 지금 이 순간에도 시민의 삶 속에서 계속 쓰이고 있다.

익산시는 익산시민역사기록관이 개관 1년 만에 지역 기록문화의 중심 공간으로 자리 잡았다고 밝혔다. 기록관은 단순한 전시 공간을 넘어 시민이 참여하고 소통하는 기록 플랫폼으로 운영되고 있다.

(편집자 주)

기록 1만 1천여 점과 시민 도슨트...시민이 주도하는 변화 전시·보존을 넘어 활용으로...살아있는 기록문화의 확장



◆ 시민이 기록의 주체가 된 기록관
익산시민역사기록관의 가장 큰 특징은 기록의 주체가 시민이라는 점이다. 시는 2021년부터 민간기록물 수집 공모전을 운영하며 시민 참여형 기록 수집을 추진해왔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까지 393명의 시민이 참여해 사진, 일기, 문서 등 1만 1,000여 점의 기록물이 수집됐다.

이 기록물들은 개인의 일상과 기억을 담고 있지만, 기록관을 통해 한 도시의 역사로 재구성됐다. 수집된 기록은 익산시민역사기록관과 디지털 아카이브 시스템을 통해 체계적으로 분류·보존되고 있으며, 전시와 도록 제작을 통해 시민들에게 공개되고 있다. 기록을 모으는 데서 그치지 않고, 시민과 공유하는 구조를 만든 점이 기록관 운영의 특징으로 꼽힌다.

◆ 민·관·학 협력으로 구축된 기록 생태계

기록관 운영 과정에서는 시민과 행정,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협력 체계가 구축됐다. 시민은 기록을 기증하며 기록관의 주제로 참여하고, 행정은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전시와 교육으로 확장한다. 지역 전문가와 학계는 기록물의 의미를 연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이러한 민·관·학 협력 구조는 기록관을 고정된 보관 시설이 아닌, 살아 있는 기록 공간으로 만들고 있다. 기록이 축적되고, 해석되고, 다시 활용되는 선순환 구조가 현장에서 작동하고 있다는 평가다.

◆ 시민기록 도슨트, 기록을 설명하다
익산시민역사기록관의 운영에서 주목받는 또 하나의 요소는 시민기록 도슨트의 활동이다. 교육 과정을 통해 양성된 시민 도슨트 20여 명은 기록관과 전시장에서 기록물을 해설하며 방문객과 기록을 연결하고 있다.

주말과 공휴일에도 이어지는 도슨트 해설은 기록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기록을 전문가의 언어가 아닌 시민의 언어로 풀어낸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 같은 시민 참여형 기록 해설 모델은 다른 지역의 관심을 끌고 있다. 울산과 대전, 나주, 김해, 청주, 증평 등 전국 각지의 지자체와 기관에서 벤치마킹 방문이 이어지고 있다.

◆ 기록을 일상 속 문화로 확장
익산시민역사기록관은 기록을 특정 계층의 전유물이 아닌, 시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문화로 확장하는 데 주력해왔다.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기록 체험 프로그램과 계절·명절 연계 행사는 기록관의 문턱을 낮추는 역할을 했다. 기록관 시간여행부터 원데이 클래스, 스탬프

투어, 음악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기록은 체험의 대상이 됐다. 아이들에게는 교육의 공간으로, 가족에게는 추억의 장소로 자리 잡았다.

이러한 프로그램 운영은 기록관 방문객 증가로 이어졌다. 개관 이후 1년간 기록관을 찾은 방문객은 1만 5,000여 명에 이른다.

◆ 시민의 기록, 도시의 자산이 되다
기록관은 시민이 기증한 기록물을 단순히 보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를 기반으로 한 콘텐츠 제작에도 힘을 쏟고 있다.

개관 1주년을 맞아 발간된 기록화 연구집 '빛나는 오늘 - 아이들의 일기로 만나는 익산'은 그 대표적인 사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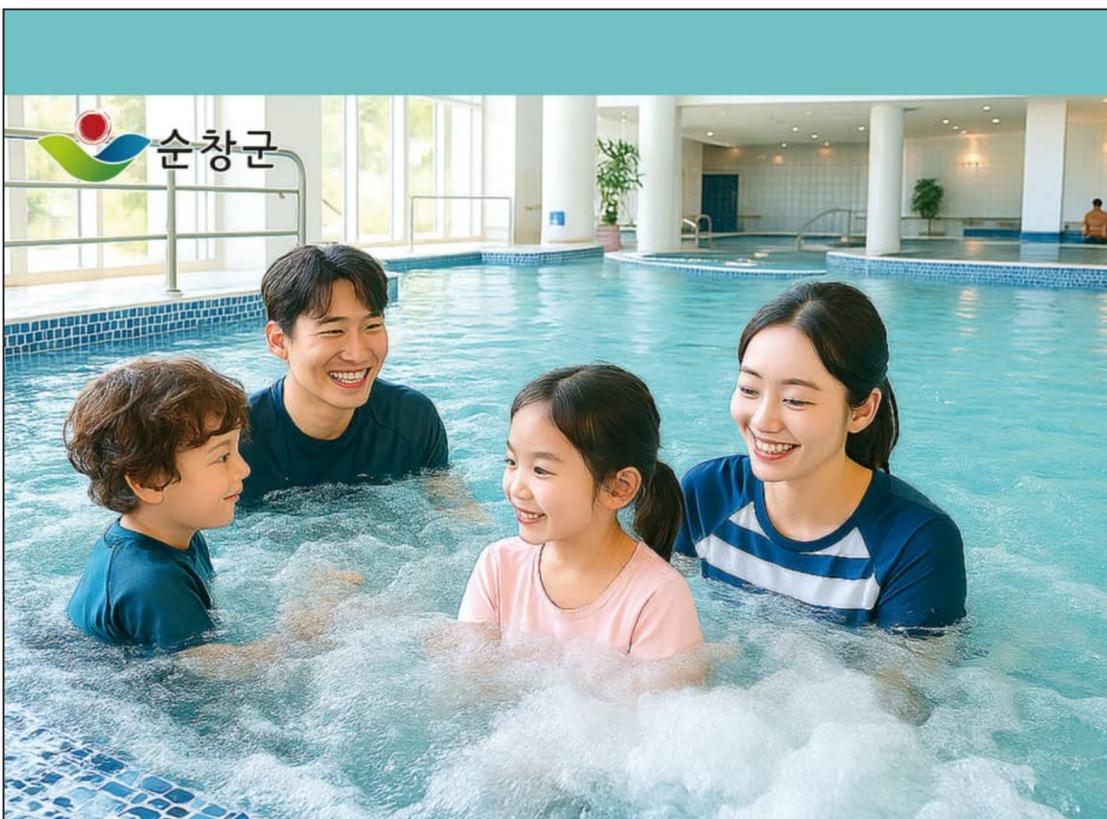
시민 4명이 기증한 학창 시절 일기를 엮은 이 책은 개인의 성장 기록이자 당시 시대상을 보여주는 생활사 자료로 평가된다. 평범한 기록이 도

시의 역사 자산으로 확장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영상 콘텐츠 제작도 병행되고 있다. 기록관과 전시 내용을 영상으로 제작해 온라인으로 공개함으로써 기록의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 1년의 성과, 다음 단계를 향해
익산시민역사기록관의 지난 1년은 시민 주도 기록문화의 가능성을 확인한 시간이었다. 기록 수집과 활용, 시민 참여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구조가 현장에서 구현됐다.

익산시는 내년을 '기록문화 활용의 도약기'로 설정하고, 시민기록가 양성과 심화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할 계획이다. 기록관 공간을 활용해 시민과 연구자, 학생들이 기록을 바탕으로 연구와 토론, 콘텐츠 제작을 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할 예정이다.

/익산=최준호 기자



순창군

HEAL FROM WATER

아이들의 물놀이 천국 순창강천힐링스파

온 가족이 천혜 자연의 물을 즐긴다.
다양한 건강체험, 온천치유 누리실, 스파체험 등
이제 새로운 순창을 경험해보세요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팔덕면 광덕로 681 강천힐링스파